

# 禮山文化院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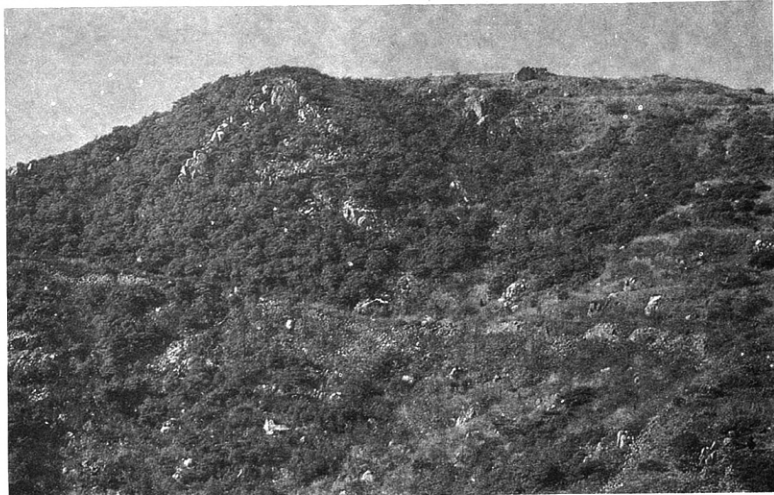


大蓮寺址의 石燈臺?

## 特輯

- 文化公報部 文化政策
- 忠清南道 新文壇에의 功績
- 春海 方仁根의 功績
- 王女の 烈行

烏山縣·任存城·今勿縣



任 存 城

## 忠南郷土史家 7月任存城모임의 意義

歷史의 研究는 郷土에 속한 現象을 對象으로 先人들의 生活文化의 흐름을 알아내는 데서 始作 되는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最近 舊石器 時代의 住居地가 錦江流域인 公州 石肚里에서 發見되드니 扶松 松菊里에서는 野山을 開墾하는 過程에서 青銅器時代의 聚落址 그리고 많은 青銅器가 禮山 任存城 下麓에서 發見되어 學界의 注目を 끌게 되었다.

이와같은 先史時代의 遺蹟은 錦江流域을 中心으로 出土遺物을 通하여 頗多하게 볼수가 있다. 大田 槐亭洞에서 出土된 青銅器時代의 一括遺物 역시 國內에서는 該類例가 없는 多樣한 珍貴物 또한 內浦地域에서 出土된 遺物과 遺蹟地로 보아 이에서 地域文化의 深層研究를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經濟的 貧困으로 基本的인 食生活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先人들이 남겨놓은 遺産을 제대로 管守하지 못하고 빼앗겼다. 不知中에 더러는 商品으로 산값에 팔려서 많은 寶物이 海外에 흘러가 버렸다.

이러한 惡夢의 歷史는 돌이킬수 없는것 이므로 늦었지만 우리는 지금 世界속에 韓國을 나타내고 高度産業社會에 對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온 國民이 내것을 알고 뿌리를 찾아 잃어버린 傳統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現代文明을 創造해 나가는데는 自然을 파괴하고 産業施設을 擴張해 나가는 데는 지금도 文化遺蹟이 被害를 당하고 있음은 世界가 또한 共通性을 지니고 있다. 이웃나라 日本을 위시하여 西歐 여러나라들이 郷土文化研究에 觀心을 가지는 것은 必然的인 時代의 使命일 것이다.

늦게나마 우리들 모임체는 뜻을 같이하고 내고장 百濟의 故土에 뿌리를 박고, 代를 이어 살아온 同志이기에 크게는 나라를 사랑하고 國益을 優先하여 擘畫리고져 勵起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歷史를 專功한 큰 學者들이 아니고 이는 機關에 속되어 指定된 研究를 擔當한 一員도 勿論 아니다.

내가 살고있는 郷土는 내가 지키는 把守軍이 되어서 먼저 모든것을 알고 지키다 後代에 傳해주는게 時代의 使命임을 스스로 느껴서 바로 알고 분석진것을 찾아 내여 郷土中心의 史觀을 整立해 보려고 뜻을 같이 하였다.

여기에서 먼저 忠南道內 各市郡에서 郷土史를 研究하는 여러 모임체가 由緒깊은 禮山의 任存城을 7월에 찾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共同課題를 討議하게 됨은 그 義意가 크다.

이 모임을 통하여 彼此隔意없는 意見을 開陳하고 資料와 情報의 交換이 이루어지므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새로운 史實을 發掘해 나가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우리들은 烽火를 든 길잡이가 되어서 불을 밝히고져 나섰으니 내 郷土를 爲하여 先人들이 남겨놓은 遺物과 그 精魂을 받들어 深度있게 찾고, 지키고 또 傳해 주는 우리들이 後世에 받자취를 남기는 證人이 될것을 스스로 다짐해 본다.

( 金英漢 )



尊敬하는 全國의 文化  
院長 여러분!

郷土文化의 發展을 爲  
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  
고 獻身的으로 奉仕하고  
계시는 文化院長 여러분

을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된것을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5일 文化公報部長官의 所  
任을 맡고서 어느분들 보다는 먼저 어려운 與  
件과 環境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郷土文化의 現  
場에서 勞苦를 아끼지 않으시는 文化院長 여러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懇切하였  
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文化院長 여러분들이야말로 오  
늘날 우리가 文化立國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가  
장 중요한 郷土文化의 뿌리를 튼튼히 다지고  
가꾸는데 精誠을 쏟고 계시는 참된 文化의 役  
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勞苦에 대하  
여 깊은 感謝와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盧泰愚大統領은 第6共和  
國의 出軌에 즈음하여 “經濟의 奇蹟을 이룩한  
우리 國民이 찬란한 文藝復興의 時代를 創造할  
수 있도록 온힘을 쏟을것”을 宣言하고, 民族自  
尊의 文化立國을 國政의 基本方向의 하나로 設  
定하였습니다.

民族自尊의 文化立國이란 다름이 아니오라,  
오랜 우리의 歷史를 통하여 이룩해 놓은 빛나

는 文化傳統의 바탕위에 外來文化를 主體的으  
로 受容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現  
代史를 創造해 나가는 自主의인 民族文化 創  
造의 意志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 '88서울올림픽에서 人類  
의 平和와 和合을 爲해 理念과 體制의 壁을 넘  
어서서 東西를 再結合시킨 民族의 偉大한 力量  
의 結集으로 이러한 民族自尊의 文化立國을 實  
現할 基盤은 充分히 具現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 民族自尊의 文化立國

### 뿌리를 튼튼히 다져

文化公報部長官 崔 乘 烈

따라서 政府는 이러한 民族自尊의 文化立國  
具現을 爲해 文化가 國力의 바탕이 될 수 있는  
基本政策을 세워 이를 積極 推進하고자 합니다.

즉, 이제까지는 文化藝術의 行政力이 文化藝  
術 各分野에 골고루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나 앞으로는 이러한 限界를 克服하여 文化의  
社會的인 役割과 機能을 增大시키는데 온 힘을  
쏟고자 합니다.

이러한 文化政策의 새로운 基調위에서 文化  
公報部가 計劃하고 있는 基本施策中 文化院과  
관련이 있는 몇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文化立國의 財政的인 基盤을 擴充하기  
爲해서 文藝振興基金을 '92년까지 3千億원을  
目標로 政府豫算, 公益資金 및 企業출연금 등  
으로 造成하여 이를 創作活動支援, 文化藝術空  
間 擴充, 韓國文化의 海外宣揚등에 사용할 計



입니다.

둘째, 文化施設 空間 擴充事業의 一環으로 全國의 市·郡中 文化院 未設置 地域에 '92年 까지 文化院을 設置토록하고, 文化院內에 영상실, 전시실, 도서실등을 갖추어 地方의 專門小 文化 空間으로 運營을 活性化해 갈 計劃입니다.

세째, 地方文化時代에 대비하여 “ 郷土가꾸기 運動, 뿌리찾기 運動”의 一環으로 古代에서 現代에 이르기까지 民族史에 있어서 先賢들이

## 國政의 基本方向으로

### 중요한 郷土文化를

( 3月23日 엠베서더오프서 文化院聯合會 總會致辭 )

남긴 重要文化史蹟地, 重要由緒地, 歷史上 重要人物의 行跡關聯 地域등을 對象으로 “ 紀念 標石 ” 설치운동을 떠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 運動에 있어서는 文化院長 여러분의 側面支 援과 役割이 매우 重要하다고 저는 믿고 있으 므로 여러 文化院長님들의 적극적인 協調를 부 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全國의 文化院이 그 高장의 中樞的인 文化센타로서 그 機能과 役割을 擴大해 나가는 데 積極的으로 支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地方文化時代가 열리면 地域社會에 있어서 文化院의 役割은 더욱 커질 것이므로 文化公報部는 文化院을 活性化하고 支援을 強化하는데 各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많은 힘 을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이자리를 통하여 제가 한가지 드릴 말

씀은, 지금 우리가 推進하고 있는 民主化는 이 는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과 努力에 의해서 成就되는 것이라 고 믿습니다.

그레아만이 成熟된 社會와 安定된 國家 들 이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文化藝術界를 包含한 우리 社會 各界各層이 混亂과 무질서가 없는 安定된 바탕위에서 民主主義와 보다 중요한 나라를 茁실하게 成長시켜 나가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國民들이 納得하고 깨우치도 록 하는데 地域社會의 指導의 位置에 계시는 文化院長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끝으로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文化部의 新設 은 내년초에는 實現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文化部의 發足과 함께 文化藝術界의 期待와 興望에 副應할 수 있도록 보다 發展的인 文化藝術政策을 具現하는데 全力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百濟의 古都인 公州에서 그동안 어려운 與件속에서 고고하게 鄉土 文化를 지켜오고 鄉土史를 發掘하고 定立하는데 獻身努力 해오신 道內 文化院長 여러분을 뵈게되니 반갑고 그感懷도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市郡을 出張할때 個別的으로는 뵈었던 기회는 있었지만 이처럼 한자리에서 뵈는 機會는 처음인것 같습니다. 자주 뵈고 좋은 말씀을 나누고 싶으나 마음뿐이고 事情이如意치 못해 뒤늦게 자리를 갖게 됨을 諒解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百濟文化가 아직도 잊혀지고 땅속에 묻힌 文化라 여겨지고 있어 우리에게는 그鄉愁를 더욱 짙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 百濟文化 精神

### 백리 찾아 道勢

忠淸南道知事 沈 大 平

이 자리를 빌어 여러 文化院長님에게 드리고 싶었던 道政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 年度의 道政은 大田市가 直轄市로 昇格이 되어서 分離돼 나감으로서 많은 與件이 變化를 갖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세가 경제적으로 표준도에서 中下位로 弱화되었습니다.

이것을 回復시키려면 西海岸 開發에 對한 期待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道政의 求心點이 喪失된것 같아서 跳躍의 轉機마련이 切實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文化藝術의 基盤도 그어느 分野 못지않게 弱화된것입니다.

이러한 道政의 與件의 變化를 어떻게 克服해 나가느냐 하는데서

于先 精神의인 測面에서 百濟文化의 뿌리를 찾아야하고 郷土史를 發掘하고 研究하여서 禮節과 忠孝 그리고 선비精神과 끈기 있고, 傳統의인 道民精神을 再定立해야만 되겠습니다. 이精神으로 物量的인 測面에서 弱화된 道勢를 早期에 回復해서 새로운 忠南開發을 期하는 元年으로 삼아야 한다는 課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적으로 약화된 도세는 활발하게 推進되고 있는 忠南 西海岸圈 開發計劃에 依하여 빠르면 3年안에 回復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러한 道勢回復을 爲해서는 그를 뒷받침 할수 있는 道民의 精神의인 基盤이 重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道民의 精神의인 뿌리

## 이어 갑시다

인 百濟精神을 再照明하면

## 回復의 元年삼아

서 이를 昇華시켜서 자랑스

런 傳統의 뿌리를 찾는 多角

3月14日 公州山城포크호텔 午餐席 對話 抄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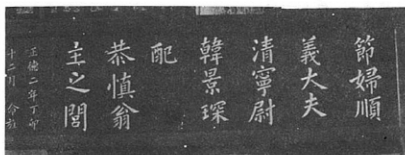
的인 施策을 펴나가겠습니다.

요즈음 이러한 우리의 傳

傳精神이 퇴색되고 회색되어가는 傾向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낍니다만 은 이 道民精神을 再定立해서 地域社會 發展에서 文化院이 郷土文化의 센터가 되어서 뿌리를 지키고 精神文化를 지키며 忠淸人的 矜持를 가지는데 中心體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分野에서 文化院의 事業이 活性化 될수 있도록 道財政이 허락되는 範圍에서 支援을 하도록 할 計劃입니다. 아무쪼록 百濟의 文化와 精神을 오늘에 되살려서 傳統의인 道民精神을 지키고 이어나갑시다. 그리고 道民 모두가 새로운 希望과 勇氣를 갖고 道政 發展에 힘을 모아 갑시다. (對話要旨)





## 恭 慎 翁 主

恭慎翁主는 王女란 至貴한 身分으로 節義가 뛰어나니 그에게 特히 쌀과 콩 三十石을 下賜하였다.

史官이 말하기를 翁主는 成廟의 貴人嚴氏의 所生이다. 燕山의 母妃인 尹氏를 廢位하는데 嚴氏가 간여하였다고하여 撲殺하고 그의 딸 恭慎翁主는 至貴한 그身分을 剝奪하여 庶人으로 삼고 外都에 가두어(囹圄安置) 그를 因奪게 하였다.

流配되는 날 翁主는 몰래 그의 男便 淸寧尉의 神主를 가슴에 품고 가서 가시나무울타리에 숨겨두고 아침 저녁으로 祭祀를 지낼뿐더러 끝인粥이나 풀열매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薦新을 한뒤에 먹었다.

이러한 事實이 中宗 反正뒤에 朝廷에 알려져 旌閭를 세우게하니 中宗 2年(1507) 十二月 丁卯이다. 其後 中宗 十年五月에 台諫에서 上劾하기를 恭慎翁主는 至親의 至貴한 몸으로 節行이 뛰어났으니 이것은 實로 國家의 榮光이고 前古에 드문 일입니다. 旌門을 세운지가 아직 오래되지 않은데 이미 기울어지고 무너지니 보기에 惘然합니다. 이것은 비록 有司가 怠愒하여 聖上의 뜻을

### 中宗… 뛰어난 節行 世上에 알려져 男便의 神主 가슴에 품고 朝夕祭祀

받들지 못한데서 생긴일이니 殿下의 代우도 또한 더 한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니 中宗이 批答하기를 旌門을 고치게하라 하였다. 또한 中宗은 말하기를 翁主는 至親의 至貴한 몸으로 節行이 뛰어났다. 그런데 至今 三綱行實錄에 참여되지 못하였다. 어찌 매몰되어 地上에 알려지지 못하게할수 있겠는가. 撰集廳에 問議하여 追記케 하라 하시고 承政院에 傳敎하기를 恭慎翁主는 成廟의 따님으로 廢朝(燕山君)때 귀양간뒤로 부터 살길이 없는데도 節議가 더욱 嚴하니내가 매우 嘉尙히 여긴다. 쌀과 콩을 아울러 五十斛(1斛 - 10 石)을 下賜하였다.

恭慎翁主는 成宗의 後宮 貴人嚴氏의 所生으로 淸寧尉 韓景琛에게 下嫁하였다. 景琛은 上党府院君의 孫이요, 琅城君 表胡公 堡의 子이다.

淸州韓氏世譜에는 韓景琛은 壬寅生이고 配翁主는 早寡 燕山甲子 流牙山 抱神主以行朝夕 哭奠 基注乙洞有表石 이라하였다.

그런데 旌閭는 禮山郡 大迹面 麻田里 348(중삼마을)에 세워졌고 額字는 節婦順義大夫淸寧尉韓景琛配恭慎翁主之閣 正德 二年(中宗二年 1507) 丁卯十二月 命旌라 되어있다.

그러나 淸寧尉와 翁主의 卒한 年月日을 알길이없다. 翁主는 血孫이 없어 靑城君 瓚을 入後하였으나 系承되지않아 絕孫이 되었다고 한다.(參考文獻: 王朝實錄, 淸州韓氏世譜)

## 和 順 翁 主

英祖가 和順翁主의 房으로 거동하면서 말하기를 「和順翁主가 男便 月城尉 죽은 뒤로부터 七日間이나 絶殺했다하니 앉아서 勸하지 않고 있다는것은 어찌 人父의 道理라 하겠는가」 하고 幸臨하였다.

和順翁主는 시집가면서부터 婦德을 갖추고 貞과柔가 兼備되었을뿐더러 雅尙하고 儉約하여 服飾의 華侈를 不用하여서 男便 都尉와 더불어 서로 恭敬하는데 힘쓰고 항상 淸慎自遜하여서 사람들이 어진 都尉요 賢淑한 翁主라하고 可히 아름다운 配匹이라 하였다.

都尉가 추하니 翁主가 下從할것을 決心하고 勺水도 입에 대하지 않고 있으니 英祖가 이 정경을 듣고 親히 그집으로 가서 餌를 勸進하니 翁主는 父王의 命을 따라 한모금을 마시다가 도로 따하니 英祖는 不可回의 뜻을 알고 嘆息만 하고 돌아왔다.

그後부터 十四日間을 絶粒하고 마침내 自盡하였다. 王의 딸로서 그의 貞操는 千古王朝의 烈哉라 하였다.

### 英祖…父가 子息旌은 不可…孝에는 缺 正祖…烈女라 門에 旌하고 祭文親撰

朝廷에서 慰庭使를 보내니 史臣이 말하기를 「婦人の 道理는 貞하나뿐인데 世上에 崩城之痛을 당하여 누가 殞身下從하여 그所願을 成就하고자 하지않으리요마는 死生이 또한 至大하기때문이다. 그런데 一胡의 生命을 버리고 함께 함은 참으로 드문일이다. 貞婦와 烈媛이 臣의 慟한 지경 卽地에서 흑시라도 뜻을 바꿀까 하였더니 어찌하여 經旬토록 絶粒하고 一列로 盟誓하고 마침내 成就하니 그節操가 翁主같은이가 있겠는가. 이때에 君父의 嚴과 親으로도 또한 感回하지 못하였으니 眞實로 純剛하고 至正之氣로 一貫되지 않았고 責育(孟賈夏育 돌다 戰國時代의 勇士)으로도 能히 그것을 빼앗을수 없는자가 아니면 누가 이와같을수 있겠는가. 이는 閭巷의 匹婦라도 어려운대 王家의 翁主에게 이런일이 있었으니 더욱 특이한일이다. 슬프다. 至行과 純德이 實로 우리聖后의 傳授한 心法이다. 때문에 翁主께서 平素 父王으로 부터感化를 받은 것이다. 슬프고 烈하며 슬프고 아름답다 하겠다.」

門主順配漢公貞贈提府都五尉月大綏烈  
之翁和蓋金孝臨管都提衛無城夫穠女

英祖는 和順翁主喪에 臨하여 禮曹判書 李益炡이 翁主의 旌閭를 請하였으나 王이 還宮後에 左議政 金尙魯에게 말하기를 「子息으로서 父言을 듣지않고 마침내 餓死에 이르렀으니 孝에는 缺이 있음이요, 앉아서 子息의 죽음을 보았으니 父道가 아니로다. 藥을 먹으라고 당부하였건만 웃으며 대답하기를 聖敎가 이려하시니 어찌 마시지않겠읍니까 하고 조금씩 두어번 마시더니 곧 환토하고 「말하기를 비록 聖敎를 받들고 있으나 心中에는 이미 작정한바 있다」하고 차마 목에 넘기지 않았다. 내 그固執을 알았으며 아버지 뜻을 承順하지 않고 마침내 殞命하니 貞烈은 있다 하겠으나 내(王) 마음이 괴롭다.」 禮曹判書가 旌閭之典을 請하나 그請이 그르다. 아버지로서 子息의 旌閭를 세우는것은 胎謀의 道理가 아니고 또 後世에 弊가 된다.」하고 拒否하였다. 이에 尙魯가 「말하기를 聖敎는 至當하오나 卓然한 節介를 泯滅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하니 英祖 다시 말하기를 「百世토록 不泯한것은 節에 있고 旌閭에 있지않은 것이며 내가 君師의 地位에

있으면서 後世에 弊를 또한 내가 가보았을때로서 男便의 이름을 내었는데 諡號를 내리는날 기다려 죽게한것 같으니 이다.」

를 「貴主의 烈行은 이 또한 將次 모든 史牒에



和順翁主 胸背

게 槨楔(旌閭)의 表를 기대하여 父로서 子息의 旌閭를 세우는것은 不可하다」하고 下敎하니 英祖의 넓고넓은 公正한것은 萬世의 法程이 示顯된것이라 하겠다.

正祖가 即位하고 七年二月六日에 和順貴主의 閨에 旌을 하고 가리켜말하기를 「사람이 자기몸을 죽을수 있닌것도 어려운일인데 臣下에 있어서는 忠이요, 子에 있어서는 孝이며, 女子에 있어서는 烈인것이다. 或者는 말하기를 女子도 男便을 爲하여 죽는것이라 하고 가르치기는 어려운 일이며 또 子息이 父母를 爲하여 減性(親喪當하여 슬픔에 젖어 生命을 잃는일) 하는것도 聖人들이 경계한바이나 喪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孝에 害가 되지않았으니 婦人이 男便을 따라 同穴을 願하여 決然이 殞身하여 殉志하였으니 그어려운일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帝王家에 있었음인가 柏舟之詠은 겨우 詩經에나 있을뿐이지 王女로서 死徙하였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던 일이다. 우리 和順貴主께서는 참으로 卓然한 節介로다 月城尉喪에 貴主께서 물과 곡식을 十餘日이나 끊고 卒하니 그때 先大王께서 親히 나가시어 勸慰 하시었으니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貴

주지않고저 함이다. 지것(翁主)이 諡號러달라 하기에 心許하 卽逝하였으니 宜諡함을 나를 가장 슬프게 한것 또한 史臣에게 말하기 미人口에 播在되었으며 記錄 할것이니 區々하

主의賢과孝로서君父의 뜻에奉順함을 알지 못한것은 아니나 끝내 한번定한 뜻을 들이지않고 殉節하시니 참으로從命한孝는少하다 하겠으나 殉身한 義는至大함이다. 아- 참으로烈함이다. 예로부터帝王家에 없는일인데 홀로 우리집에만 있으니 東方의 貞信에 表像일뿐 아니라 그가장 빛나는 우리집의 懿範이아니겠는가. 貴主께서 平素 資性이 婉柔하고 德誼가 純備하여 죽고사는 義理의 輕重에 分明함은 本來부터 있는것이지 한때의 介然한 節義을 取하여 決心한데 比하지 못할것이다. 아- 참으로 賢淑함이다. 卓然한 行蹟이 貴主와 같은 즉, 棹楔之典을 어찌 배풀지 않으리요. 내 일찍 있지 않고있었으나 舉行치 못하다가 至今 各道の 孝와 烈을 褒獎하는 날을 當하여 더욱 슬픔이 感動하여 有司에게 命하고 和順貴主의 집에가서 門에 旌하여 이르기를 烈女라 하고 또 가르켜 和順貴主 主第라 하였으며, 旌闈하던날 내가 生晩으로 儀容을 備치 못하였으나 致祭케하고 祭文을 親撰하였다. 이큰일로 因하여 和順貴主의 德行을 至今까지 宮中에서 女中君子라 稱하고 있다. 外에 孝友의 根天함은 많이 있으나 다 기록하지 못한다. 純祖五年 十一月十日에 承旨를 보내어 和順翁主內外祠堂에 致祭하였는데 그孫 金魯敬의 登第하는 날이었다.

또한 純祖十九年 閏四月一日에 興政堂에 왕이나가 文武科員의 謝恩을 받았는데 새로 及弟한 曾孫인 金正喜를 三鉉六角을 잡고 仍敎曰, 「月城尉의 嗣孫이 이제 登科를 하였으니 실로 喜幸하도다」하고 貴主內外祠堂에 承旨를 보내어 致祭하였다.

曾孫 金正喜는 雅號를 秋史, 院堂等 二百六十餘號를 使用하였으며 官은 翰林 湖西御史 奎章閣 侍敎 兵曹參判에 이르러 淸儉하였으며, 그는 特히 金石學, 圖書, 詩文 篆隸之學, 實學, 墨畫에 뛰여났고 書法은 獨創의인 秋史體를 이룩한 筆聖으로 그의 이름을 남기고있다.

또한 純祖十六年(1816) 從來에는 無學大師의 碑石으로 傳해오던 北漢山峰의 碑石이 眞興大王 巡狩碑임을 考證하는등 우리나라 最初의 金石學을 이룩한 過眼錄을 著述한 不滅의 學者이기도 하다. 그러나 憲宗六年(1840)에는 黨爭인 尹尙度의 獄事에 連累되어 濟州島에 流配當하고(1848年)에 釋放되었으나 哲宗二年(1851) 眞宗大王(孝章世子로 追尊)의 廟遷問題로 또다시 北靑으로 流配하니 그때 秋史의 나이 六十六歲였다. 이듬해 釋放되었고 哲宗八年(1857年) 十月十日 卒하니 壽는 七十二歲였다. (參考文獻: 王朝實錄. 慶州金氏世譜)

禮山郷土史研究會 李 揆 成



## 參與하는 郡民의 衆智모아

— 和合과 發展하는 禮山을 建設하자 —

禮山郡守 柳 德 鉉

尊敬하는 14 萬 郡民여러분!

平素 愛郷心을 가지고 地域社會 開發과 郡政發展에 積極協助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衷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輿件下에서도 끊임없이 聲援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勞力의 結果로 忠節과 禮節의 高장 우리禮山은 나날이 發展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 다져온 安定과 和合의 基盤위에 希望찬 來日을 맞이하기 爲하여 間斷없는 國民의 努力을 傾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變혁의 受容과 共同體의 保全 그리고 地方化 時代에 따라 變모하는 多樣하고 異質의이며 不連續의인 多元화 時代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判斷에 따라 그것을 不屈의 意志로 옮기는 우리 옛 先祖들의 선비정신이 그 어느때 보다도 要求되는 重要한 時期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우리에게 希望과 보람과 未來에 대한 꿈을 키우는 특별한 意味를 賦與하는 한해입니다. 넓게는 우리나라가 國際隆盛의 문턱에서 世界속의 韓國이라는 金字塔를 세우는 한해가 될 것이며 좁게는 지방화 시대의 主役으로서의 役割을 갖는 아주 意味있는 한해가 될것입니다.

우리 全公務員은 地方化 時代에 따른 내고장 건설을 위하여 各分野別로 크고 작은 事業들을 구상하고 推進함과 아울러 和合과 團結로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行政을 具現하여 和合하는 郡民, 發展하는 禮山建設에 渾身의 努力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一連의 施策이 보다더 實效를 맺기 위해서는 어느 몇사람의 努力만으로는 불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郡民의 積極的인 參與아래 衆智를 모아주시고 힘을 합쳐 주실때 우리 禮山郡은 보다 發展하는 地域으로 成長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무쪼록 보다 積極的인 參與와 激勵을 아끼지 마시고 더욱더 聲援해 주신다면 보다 實效의 政이 이룩되리라 確信합니다.

끝으로 郡民여러분의 健勝을 빌며 各家庭에 幸運이 充滿하시기를 祈願하면서 人事에 加함합니다. 感謝합니다.



## 보람있게 고장學校가꾸어

— 校史館꾸며 學校來歷 알수있게 —

禮山郡教育長 李 盈 福



선비精神을 바탕으로한 禮의고장, 國難時에 忠·烈士에서 뿌리내린 愛鄉, 愛國氣風의 우리고장, 이를 이어 나가기 爲해서 健康人, 自主人, 創造人, 道德人을 期待하는 未來社會에 適應하는 人間기르기를 教育指標로 삼고 이를 實踐하기 爲해서

첫째로 民主市民의 資質을 가꾸기 爲해 鄉土史料, 遺蹟의 教材化 韓國畫, 國樂, 民俗놀이指導 人事면저하기 우리집 자랑 알기爲한 家族新聞 만들어 돌려보기, 용돈記錄帳쓰기, 내불건 내가 사쓰기로 經濟生活 經驗쌓기, 討論活動을 中心으로한 바른 價値觀 定立에 힘쓰고,

둘째는 農村學生에게 奮發하여 工夫하는 雰圍氣를 造成하기 爲해 온종일 教室工夫房 運營으로 宿題, 讀書, 不足한 工夫하기,

한편 말하고 글쓰는 機會를 많이 提供하고 放課後에는 趣味와 特技啓發을 爲한 常設클럽活動 展開, 그리고 해마다 學校가 줄어들에 따른 少大數學級授業을 1對1 個別學習으로 徹底하게 指導하고자 합니다.

세째는 快適한 教育環境을 꾸미어 高尙學校를 으뜸學校로 바꾸고자 합니다. 나무가꾸기, 들쌓기, 花盆마련하기로 造景專門人士의 諮問에 依據, 公園化, 情緒環境으로 바꾸고 學生이 즐겁고 便利하게 쓸수있는 視聽覺資料等 學習活動福祉施設과 溫水, 養護, 놀이機具等 生活活動 福祉施設의 擴充에 注力하고 卒業生, 學父母, 地域人士께서 같이 學校來歷을 알수있는 校史館을 꾸미고 學校教育의 理解增進을 爲한 學父母의 소리 窓口를 마련하여 運營하는 한편 特別 小規模學校의 運動會, 學藝會等 큰行事는 모든 地域人이 같이 한마당놀이 할수있는 프로그램으로 進行하여 地域祝祭로서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教育成果의 期待는 原因과 過程이 重要합니다.

幼·初·中·高校 教育의 連繫性 維持, 全學父母 스승되어 學生바로잡아주기, 가는곳, 당는곳, 미치는곳마다 教育場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本郡 教育發展에 協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民同參으로 地域治安確保

— 끊임없는 指導와 鞭撻을 바라며 —

禮山警察署長 李 貞 吉



尊敬하옵는 禮山郡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三月一日字로 禮山警察署長으로 赴任해 온 李貞吉입니다.

原來 淺學菲才하고 不德한 저로서 禮와 忠을 重히 여기며 예로부터 많은 名賢과 碩儒義士烈士를 輩出하고 민면히 흐르는 좋은 傳統을 이어가고 있는 忠節의 高장 禮山에서 重責을 맡고보니 郡民의 뜻에 얼마나 副應하게 될지 저오기 걱정되었으며, 한층더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 성한 肉體와 올바른 精神을 더욱 가다듬어 맡겨진 所任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民族은 끈질긴 忍耐과 大和合의 精神과 一致團合된 온 國民의 힘으로 지난 '88年度의 第24回 서울올림픽을 世界人이 부러워하는 成功의인 大會로 치루었습니다. 當時만해도 果然 地球上에서 볼때 조그마기 그지없는 韓半島, 그것도 兩分된 國土의 서울에서 이렇게 큰 行事를 치루어낼수 있게느냐고 하는 걱정과 輿論이 澎湃하였을뿐 아니라 特別 北韓을 爲始한 世界의 赤軍派 테러 脅迫에도 不拘하고 人類最大의 좋은 結果를 創出하였던 것입니다.

周知하시다시피 그 以後 우리는 世界속에 “우리”라는 存在를 알았고, 思想을 超越한 問戶의 開放으로 政治·經濟·社會·文化面에서 相互交流가 始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近間들어 各種 勞使分科·學院事態 이에 좀먹어 들어가는 左傾勢力의 얼골없는 操縱 등으로 이나라는 걱정스러우리만큼 動搖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蓄積되었던 意思들을 自由와 民主를 앞세워 一時에 噴出하다보니 混亂의 樣相이 격해 보이는데 합니다마는 左傾暴力樣相을 除外하고는 크게 걱정할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틈을 노려 社會의 一角에서는 凶惡犯들이 跋扈하고 過去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駭怪한 犯罪가 우리 모든 善良한 國民을 괴롭히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禮山警察은 奮然히, 그러나 默々하게 社會治安의 安定에 全力하며 한타라도 禮山郡民의 安寧과 秩序를 爲하여 放心함이 없이 誠實과 正直으로 熱心히 努力하겠습니다.

지난 서울올림픽의 矜持와 自負心を 한데 凝結시키어 나라의 發展과 地域治安確保에 우리 禮山郡民 여러분께서도 同參하시어 그어느때 보다도 積極的인 協調로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고장이 되도록 다함께 努力하여 주시길 付託드립니다.

끊임없는 指導와 鞭撻을 바라오며 한분 々의 家庭에 萬福이 깃드시오 하시든 모든일 所願대로 되시길 眞心으로 祈願하며 人事에 가름합니다.

# 春海 方仁根

— 그는 禮山人이었다 —

김 정 옥

## 1

春海 方仁根, 그는 韓國 新文學의 開花期라 할 수 있는 1920 年代에 金東仁, 田榮澤, 康想涉, 玄鎮健, 羅稻香, 崔曙海, 朴英熙, 金八峰, 朴鍾和등과 더불어 새롭게 登場하여 많은 作品을 남긴 小說家로서 韓龍雲(詩人 洪城), 尹白南(小說 公州), 金石松(詩人 江景)과 함께 當時로서는 드물게 보는 忠淸人이자 唯一한 禮山人이었다.

그와 같은 사실은 1954 年 趙演鉉이 “文學과 藝術”誌에 쓴 “解放文壇 10 年史”와 1966 年에 發表한 “韓國新文學考”, 그리고 文元閣에서 發刊한 “韓國文學大事典”(1973) 등에서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不幸히도 오늘날 그의 그 많은 作品과 그의 이름을 記憶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가 莫大한 財産을 投入하여 韓國 最初의 文藝誌 “朝鮮文壇”을 創刊, 韓國 近代文學史에 至大한 功績을 남긴 人物이란 事實에 對해서는 더더구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는 生涯 50 篇에 가까운 長篇과 수 많은 短篇, 그리고 隨筆과 雜文을 썼다. 그러나 겨우 1955 年에 民衆書館에서 펴낸 “韓國文學全集”(全 36 卷)을 除外하고는 그 어느 文學全集에서도 그의 作品을 찾아 볼 수가 없다.

그와 같은 그와 그의 作品에 對한 文壇的 疏外는 批評分野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나라 現代文學 '70 年 史上 數많은 批評家가 탄생했지만 春海의 作品에 關한 批評이나 論評을 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그가 主幹했던 “朝鮮文壇”이 新文學 胎動에 적지 않게 이바지 했다는 事實을, 한 두 批評家가 그들의 著書나 論文에서 斷片的으로나마 認定하고 있는 대목을 散見할 따름이다.

그러면 어째서 그와 그의 作品이 철저히 文壇에서 소외되고 그의 文學史的 功績마저도 世人의 記憶에서 사라지고 말았을까?

거기에 對해 評論家 趙演鉉은 그의 많은 著書를 通해,

「長篇新聞連載 小說에 그 文學的 主力을 둔 李光洙, 金東仁, 朴鍾和등을 위시한 方

仁根, 尹白南 其他 作家系列은 그들의 作品이 大衆文學이라는 概念下에 文壇의 關心이나 文學의 價値의 對象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韓國文學 半世紀의 動態」 “韓國新文學史”)고 萬提하고,

「1920 年代의 小說家로서 아직 活動하고 있는 作家로서는 이 밖에도 方仁根, 주요섭 등이 있다. 1924 年 “朝鮮文壇”이라는 純文藝誌를 創刊하여 韓國文壇에 相當한 功績을 기친 方仁根은 너무나 빨리 그의 小說을 通俗化 시켰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등 서정적 佳作를 남긴 주요섭은 現在도 가끔 作品을 發表하고 있다.」(1966 “韓國新文學考”)라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春海가 文壇에 기친 커다란 功績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作家의인 地位를 確保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너무 일찍 專門 通俗小說家로 轉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는 일리가 있는 지적감기도 하다.

그러나 같은 系列에 屬하는 金來成, 金末峰, 朴花城 등의 職業的 通俗小說家들은 그 래도 심심치 않게 批評家들의 찬사를 들어온 셈이다.

通俗小說이 1930 年代부터 文壇의 關心外의 存在가 됐다고 論述한바 있는 趙演鉉이 “韓國新文學考”에서,

「金末峰과 朴花城은 다 같이 1930 年代 前半期에 登場한 女流作家들로서 그 文章力과 大衆心理를 把握하는 特別한 能力으로 因하여 新聞小說家로서 大成한 作家이다. 金末峰의 作品으로는 “密林” “절레꽃” “花冠의 季節” 이 밖에 10 餘편의 長篇이 있으며, 朴花城의 作品으로는 “白夜” “사랑” “고개를 넘어서” 등 이밖에 10 餘편의 長篇이 있다. 이 두 作家의 大衆의 成果를 높여 주었다.」고 칭찬한 거나, 評論家 白鐵이

「李泰俊 같이 短篇小說에선 純粹한 藝術性을 期해 온 作家가 新聞小說로서 “青春茂盛” “별은 窓마다” 등을 連載하게 될 때는 女學生들의 感傷취미에 意識적으로 호소하는 一種의 女學生小說을 쓰고 말았으며...」(“朝鮮新文學思潮史”) 하고 純粹小說家들의 通俗小說 執筆을 批判하면서도 「金來成은 “白假面” “慮人” 등을 통하여 探偵小說家로서 그 鬼才가 評價된 것」(同思潮史)이라고 金來成을 격찬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고 보면 春海의 文壇의 沈沒이 단순한 作品의 通俗性에만 그 原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오히려 通俗作家로서도 力量이 모자랐던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趙演鉉이,

「1930年代以後에 있어서도 文學生活을 스스로 포기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혀 文學生活을 維持할 수 없을 정도를 그 力量이 貧弱했거나 또는 無理하게 文學生活을 유지해 갔어도 그 영향력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무지 文壇의 關心의 對象이 될 수 없었던 梁白萃, 吳天錫, 林蘆月, 劉道順, 金觀鎬, 金瓚永, 金明淳, 金一葉, 羅蓮錫, 金華山 云云」 하면서 春海의 이름을 力量이 不足했던 作家群에 포함 시키지 않고, 오히려

「1920年代의 小說家로서 아직 (1966-筆者)까지 活動을 하고 있는 作家로서는 이 밖에 方仁根, 주요섭등이 있다.」고 한걸로 보아 春海가 비록 通俗小說은 썼지만 作家로서 그리 처지는 측에 屬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 하나 不幸히도 直接 作品을 接하지 못하고 보니 무어라 할 말이 없다.

## 2

却說 하고, 春海가 처음부터건 너무 일찍부터건 간에 通俗物만 量産해온 作家였고, 그래서 評者들 말마따나 文學의 價値 對象에서 完全히 멀어지게 되었다고 치자,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新文學 開花期에 純文藝誌를 創刊하여 韓國現代文學史에 至대한 功績을 남긴 事實까지 잊어버릴 수야 없지 않겠는가.

春海의 “朝鮮文壇”에 關해 言及한 여러 文人들의 論說을 대충모아 보면, 그들은 하나 같이 지나가는 얘기거리로만 取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도 多幸히 1971年 “月刊文學” 12月號에 쓴 金根洙의 “朝鮮文壇考”와 趙演鉉이 1955年에서 1956년에 걸쳐 “現代文學”에 連載한 “韓國現代文學史”가 比較的 자세하게 “朝鮮文壇”의 文學史의 功績을 紹介하고 있어서 春海로서는 多少나마 慰安을 받았으리라 믿어진다.

여러 紙誌에 紹介된 內容을 간추려 보면, 春海가 “朝鮮文壇”으로 하여 韓國現代文學史에 남긴 발자취가 實로 窺음을 直感할 수 있다.

첫째, 春海는 文藝誌 “朝鮮文壇”을 發刊하는데 幾萬圓의 私財를 아낌없이 털어넣었다. 둘째, 同人誌 뿐이던 當時(1920年代)에 “朝鮮文壇”을 史上 最初로 文壇誌화했다. 셋째, “朝鮮文壇”을 通해 韓國現代文學史에 잔연히 빛나는, 數 많은 作家와 珠玉 같은 作品들을 배울 했다.

네째, 當時 大部分의 文藝誌가 階級主義 傾向이나 民族主義와 階級主義의 折衷 路線을 擇하고 있을 때 “朝鮮文壇”만은 始終 民族主義의 傾向을 堅持했다.

이를 다시 부연하자면, 먼저 春海가 “朝鮮文壇”으로 해서 당한 財產이 正確히 얼

마나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추측컨데 巨金이었던 것만은 事實인 것 같다. 거기에  
對해 春海 自身은 1968年 “月刊文學”에 連載한 「“朝鮮文壇”의 回顧」에서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그때 돈 몇萬圓(지금 돈 億臺가 넘는 돈)과 몇 百石의 秋收를 고스란히 바친데는…」

그 뒤인 1971年 金根洙도 「同誌 1期 敬亭자(方仁根)는 祖上에서 물려받은 土地  
全部를 정리하여 銀行에 預金해 놓고 雜誌 發刊에 着手했다.」(“朝鮮文壇考”) 라고  
했고, 그보다 앞서 作家 洪曉民 역시 1955年 “現代文學”에 “文壇側面史”를 連載  
하면서 「“朝鮮文壇”의 主幹은 春海 方仁根이었고 그 主宰者는 春園 李光洙였다. 그  
때 春海는 平壤에서 그다지도 많은 財産을 分財 받아 서울 와서 “朝鮮文壇”을 創刊  
하였던 것이다.」했다.

그런가 하면 春海의 前妻男이었던 作家 田榮澤조차 같은 해 “現代文學”(2月號)에  
「“創造”와 “朝鮮文壇”과 나」를 쓰면서 “朝鮮文壇”의 出現에 對해 妹弟였던 春  
海보다 李光洙를 훨씬 더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出資에 關해서만은 「春海는 全財産을 기  
울여서 “朝鮮文壇” 건설에 적지 아니한 貢獻을 했다.」고 是認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春海가 “朝鮮文壇”에 全財産 幾萬圓을 쏟아 넣었다고 술회한 것에는  
조금도 거짓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參考로 1920年代(正確히는 1924年~1927年)의 幾萬圓이란 돈이 얼마나 巨金이었  
나를 가늠해 보기 위해, 1931年에 着工하여 翌年 5月 30日에 竣工한 現 忠南 道廳의  
建築費와 건주어 보기로 한다.

當時 2層 건물이었던 道廳 廳舍의 總工事費는 16萬7,400圓이었다. 万若 春海가  
出資한 金額이 總 5~6萬圓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金額은 가위 增築 前의 忠南  
道廳 건물을 절반, 아니면 5分の 2 정도는 능히 지을 수 있는 巨額이었다고 할 수 있  
을 것 같다.

青年 春海의 勇斷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巨事였다고 할만하다.

둘째로 1924年 春海에 依해 “朝鮮文壇”이 發刊될 때까지의 文人들 活動은 순전히  
同人誌에 依存한 것이었다. 이 時期를 趙演鉉은 “同人誌의 文壇”이라 규정하고 「이  
러한 同人誌 혹은 準同人誌가 이름테면 文壇의 代表的인 發表機關이었으며 그러한 同  
人誌의 同人에 가담 되는 것으로써 그대로 文人의 資格을 얻었던 것」(“韓國文學 半世  
紀의 動態”)이라고 主張했다. 마침 그와 같은 때에 史上 처음으로 全文人들에게 誌面

을 開放한 “汎文壇의인 性格을 띠운”(“韓國詩文學史-趙演鉉) “朝鮮文壇”이라는 「韓國 最初의 文藝誌」(1959 東亞出版社刊 “새百科學典” 其他)를 登場시켰으니 그야말로 韓國現代文學史에 한 획을 긋는 快事라 아니할 수 없다.

評論家 白鐵은 이 點에 對해 그의 著書 “朝鮮新文學思潮史”에서 「요컨대 “開關”과는 달리 “朝鮮文壇”은 우리 新文學史에 있어서 最初의 文壇的 文學誌로서 그 功績이 크게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해 “朝鮮文壇”의 文學史的 價値를 強調했으며, 前記한 金根洙도 「“朝鮮文壇”考」에서 「“朝鮮文壇”은 몇 사람들의 同人誌는 아니었다. 명칭 그대로 우리 文壇의 雜誌라 할만큼 거의 全文壇人이 망라되어 있는 우리 나라 最初의 “文壇雜誌”였다.」라고 말해 역시 위의 두 評論家와 見解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朝鮮文壇”의 座標에 對해서는 더 이상 異意의 여지가 없을성 싶다.

### 3

다음으로는 “朝鮮文壇”이 數 많은 有能한 文人들을 배출하는 한편 오늘 날 韓國文學界에서 古典의인 대우를 받고 있는 많은 作品들을 世上에 태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결코 看過할 수가 없다.

春海의 前妻男 田榮澤은 1955年 “現代文學”에 쓴 「“創造”와 “朝鮮文壇”과 나」에서 「“朝鮮文壇”은 그 수명이 길지는 못했으나 이 때에 羅稻香, 韓雪野, 蔡萬植, 玄鎭健, 李殷相 詩人의 文壇人을 出世했다.」라고 했는가 하면 金根洙도 “朝鮮文壇”의 業績을 「“朝鮮文壇”考」에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朝鮮文壇”은 1924年 10월에 創刊되어 …中略… 그 동안 우리 文學界에 남긴 貢獻과 業績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첫째, 많은 文人을 輩出한 점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먼저 “朝鮮文壇”에 추천 또는 入選(當選)된 作家와 作品을 들면 이렇다.

- ▲ 崔鶴松 “故國”(推)(小說)
- ▲ 蔡萬植 “세 길로”(推)(小說)
- ▲ 朴花城 “秋夕前夜”(推)(小說)
- ▲ 桂鎔默 “相換”(當)(小說)
- ▲ 安壽吉 “목도리”(當)(공트)

… 中 略 …

특히 小說에 있어서 崔鶴松, 蔡萬植, 任英彬, 韓秉道, 朴花城, 桂鎔默, 安壽

吉 등의 新人들의 輩出은 文學史的으로 特筆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외에 推薦 등을 거치지 않고 간접적으로 “朝鮮文壇”이 產出한 小說家로는 주요섭, 崔獨鵬 등을 들 수 있고, 同誌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產出한 詩人으로는 曹雲, 鷺山(李殷相) 가람(李秉岐)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文學史的 意義를 갖는 作品을 量産한 일을 들지 않을 수 없다.(作品: 目錄省略-筆者)

다음으로 文學史的 意義를 갖고 있는 作品을 들어 보면 이렇다.

- ▲ “천 담”(通卷1號) “寫眞”(2號) 田榮澤
- ▲ “義氣論”(옛세이3號) 李光洙
- ▲ “감자”(4號) 金東仁
- ▲ “그믐달”(수필4號) 羅稻香
- ▲ “電話”(5號) 康想涉
- ▲ “B舍監과 리브레터”(5號) 玄鎮健
- ▲ “脫出記”(6號) 崔曙海
- ▲ “輪轉機”(12號) 康想涉
- ▲ “朝鮮國民文學으로서의 時調”(論文16號) 崔南善
- ▲ “時調 胎盤으로서의 朝鮮民性과 民俗”(論文17號) 崔南善
- ▲ “紅焰”(18號) 崔曙海
- ▲ “白痴 아다다”(23號) 桂鎔默
- ▲ “다시 海峽” “地圖”(詩24號) 鄭芝鎔
- ▲ “旗入 발”(26號) 柳致環

세째, 合評會를 6會나 開催한 일이다.

- ▲ 제1회(6號) 出席者: 金基鎭, 金億, 李光洙, 朴鍾和, 康想涉, 羅彬, 梁建植, 玄鎮健, 方仁根, 崔鶴松

… 中略 …

- ▲ 제6회(11號) 出席者: 梁建植, 金東仁, 玄鎮健, 羅彬, 方仁根, 崔鶴松

以上 合評會에 對해 物議가 분분했다. …中略… 그러나 이 合評會를 우리나라에선 처음의 試圖였고 意義 있는 그리고 특색있는 行事였고 …中略 …

네째, 長壽誌라는 點이다.



해수로는 13年 關聯 횃수만도 6年, 通卷 26號 日帝下에서 걸코 短命誌랄수 없  
다. (參考: 第1號~第17號 方仁根 發行, 第18號~第20號 南進祐 發行, 第21號~  
第26號 李學仁 發行)

評論家 趙演鉉도 同誌의 作家인 作品의 輩出에 對해 「“朝鮮文壇”은 每호 李光洙의  
“文學講話”, 金岸曙의 “詩作法”, 金東仁, 康想涉의 “小說作法” 및 “小說講話”  
같은 것을 掲載했는데 이것은 同誌의 純文學的인 創作意慾을 反映한 것이었다.

그 또 하나는 同誌는 創刊號부터 懸賞推薦制를 두어 다수의 新進作家를 양성 進出し킨  
點이다.」라고 말한 다음, 「“朝鮮文壇”의 重要 執筆者인 李光洙, 康想涉, 朴鍾和, 崔  
曙海, 方仁根 등으로 構成된 人物들로서 每月 作品合評會를 速記 掲載했는데 …中略…  
이 作品合評會는 싸롱批評의 一形態로서 文學座談會의 嚆矢를 이룬 것이었다.」라 하여  
前記 金根洙의 論旨를 뒷바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傾向 詩人 朴八陽조차 「“朝鮮文壇”의 꾸준한 노력과 活動으로, 말  
미암아 다수한 作家가 나오게 된 것은 가리지 못할 사실이다.」(“新詩運動概觀”)라  
고 말해 위와 같은 사실을 認定하고 있다.

#### 4

이에 對해 當事者인 春海 역시 1933年 9月 “朝鮮日報”와 1938年 “朝光” 6月  
號에 소상히 밝히고 있는데 그 中 “朝光”에 쓴 內容을 옮겨 보기로 한다.

「“朝鮮文壇”이 발행되는 3年 동안 小說, 詩, 評論 등 文藝作品이 前無後無하다고  
할만큼 大量으로 產出 되었고 그 質도 現文藝의 先驅요 어머니라고 할 既成 文人으로  
春園, 想涉, 東仁, 憑虛, 稻香 등 諸氏가 珠玉 名篇으로 活躍하였고, 詩로는 岸曙,  
요한, 月灘 諸氏가 이름답게 장식하였다. 순전히 “朝鮮文壇”이 產出한 小說家로는  
崔曙海, 韓雪野, 朴花城, 蔡萬植, 任英彬 등 諸氏요, 間接關係로 는 朱요섭, 浪雲, 崔  
獨鵬, 梁白華, 李鍾鳴, 羅蕙錫, 金一葉 諸氏다. 또 “朝鮮文壇”에서 나온 詩人으로는  
曹雲 李殷相, 劉道順, 李章熙 諸氏와 間接관계로는 无涯 巴人 露雀 李秉岐, 李一, 石  
松 李相和, 吳相淳, 白基萬, 卞榮魯, 鄭寅普, 金麗水(朴八陽), 盧春成, 金東鳴, 赤  
羅山人 등 諸氏다.」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더 添記하랴, 이밖에도 여러 論客들이 이 部分에 關해서 斷  
片的으로나마 言及하고 있는 論文이 조금은 더 있으나 그 것은 다음 機會에 紹介하  
기로 한다.

끝으로 民族文學誌로서의 “朝鮮文壇”을 얘기할 차례다.

이 問題에 對해서도 文人들은 全的으로 意見을 같이하고 있다. 그 中에서 몇 사람의 論考만을 紹介해 보기로 한다.

#### ▲ 趙演鉉

「“創造”의 寫實主義의인 傾向이나 “廢墟” “白潮”의 浪漫主義의 傾向이나 “開闢”의 階級主義의 “朝鮮文壇”의 民族主義의인 底流나 “文藝公論”의 折衷主義의인 노력이…」(韓國文學 半世紀의 動態)

「“開闢”의 文藝欄과 “朝鮮文壇”은 다 純文學運動에서 始發된 것이지만 號를 거듭함에 따라 前者는 社會主義의인 傾向文學을 反映했고, 後者는 純文學 혹은 民族文學을 主張하는 形態를 取했다.」(韓國新文學史)

「“朝鮮文壇”의 反階級主義의인 態度는 純文學의인 것의 堅持로 볼 수 있다. (韓國新文學史)

「“開闢”의 朴英熙, 金基鎮등을 中心으로한 階級主義의인 傾向에 比하여 그 中心人物의 人的 構成을 달리한 “朝鮮文壇”의 民族主義의인 傾向은…」(韓國現代文學史)

#### ▲ 白 鐵

「이 때에 登揚한 詩人 作家中에서도 確실한 民族意識을 正心 바탕으로 하고 登揚해 온 사람들이 많다. 때는 마침 “朝鮮文壇”이라는 新文學史上 첫번의 文壇지어널 리증誌가 나와서…中略… 民族意識의 詩人들, 더 순수한 文學意識의 사람들이 登揚했던 것이다.」(朝鮮新文學思潮史)

#### ▲ 金根洙

「“朝鮮文壇”은 民族진영의 文學雜誌였다.…中略… “朝鮮文壇”은 “階級文學”을 지지하는 雜誌가 아니었다. 프로文學 雜誌는 더욱 아니었다.…中略… 正面으로 民族主義의 文學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人的 構成으르 보나 編輯內容으로 보나 新 傾向派 乃至 프로文學系와는 엄연히 다른, 아니 그네들과는 對立的인 立場을 취한 雜誌였다.」(“朝鮮文壇”考)

#### ▲ 其 他

「方仁根은 全財産을 투입하여 1924年 純文藝誌 “朝鮮文壇”을 創刊, 프로誌에 對抗하여 民族主義文學을 옹호하면서…」(韓國文學大辭典)

「“朝鮮文壇”은 民族文學의 순수성을 옹호하고 階級主義의 傾向文學을 배격하는데

힘 썼다.」(韓國文學大事典)

위에서 紹介한바와 같이 “朝鮮文壇”의 性格이 뚜렷이 밝혀졌거나와 同誌가 創刊되던 1924年경부터 약 10年間은 그야말로 우리 文壇은 프로레타리어 文學이 관을 치던 때였다. 그러나 그러한 時代의 波高에도 不拘하고 民族의식을 가진 많은 作家들이 漂流함이 없이 곳곳이 民族文學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朝鮮文壇”이라는 活動舞臺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5

小説家 方仁根이 걸어온 文學의 발자취는 쉽게 年譜를 發見할 수가 없어 自述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973年 文元閣에서 펴낸 “韓國文學大事典”과 1953年 藝術綜合誌 “文化世界” 9月號에 掲載된 “現存 韓國文學人總覽”에 紹介된 그의 履歷을 살펴보면, 그는 舊韓末인 1899年(光武3年)에 忠南 禮山郡 禮山邑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집안이 富裕했는지 일찌기 新學問을 배우기 위해, 서울의 培材學堂에 入學했다. 培材學堂에서 基礎를 닦은 그는 卒業 후 10代에 渡日하여 東京 青山學院 中等部를 거쳐 日本 中央大學에서 修學하였다. 大學을 나온 그는 文學에 뜻을 두고 歸國하여 小説을 쓰다가 1924年 若冠 25세의 나이로 全財産을 投入하여 純文藝紙 “朝鮮文壇”을 創刊, 프로文學에 對應하는 民族文學을 옹호하면서 蔡萬植, 李章熙, 朴花城, 崔曙海 등 많은 作家와 詩人들을 배출시켰다.

그는 1934年 “魔都의 香불”을 東亞日報에 連載하고 뒤이어 “雙紅舞”(1936 朝鮮日報) “새벽 길”(1938 每日申報) “花心” “故鄉山川” “紅雲白雲” “젊은 아내” 등 많은 長篇小説을 新聞에 連載했다. 그러다가 解放 후에는 新聞에 發表하지 않은 全作을 多數 刊行하다가 1952년에는 中央日報(그후 廢刊)에 長篇 “明日”을 連載한 바 있다. 그는 또 한 때 探偵小説을 시도한 일이 있는가 하면 어린이들을 위한 兒童文學에도 손을 댄바가 있다.

그는 自他가 共認하는 通俗小説家임에는 틀림이 없다. 많은 新聞 連載小説을 비롯하여 40餘편의 長篇小説을 썼으면서도 오늘날 韓國文壇에서 그에 대한 대접이 소홀한 것은 그가 通俗作家라는데 있다는 사실도 위에서 指摘한데로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通俗小説을 쓴 作家는 아니었다. 그도 初期에는 많은 短篇을 썼다. 그中 “朝鮮文壇”을 통해 發表한 短篇만해도 “어머니” “비오는 날” “殺人” “죽지 못하는 사람들” “自動車운전수” “마지막 편지” “의로움” “老총각”

“朴哲” 등 9篇이나 되며, 戯曲(“社會相”)도 한 篇 發表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던 그가 趙演鉉의 말대로 「너무 일찍 通俗作家가 된」 것이 탈이었다. 그러던 무엇때문에 「文學의 價値의 對象에서 점차 멀어지게 된」 通俗小說에 그리도 일찍이 빠져버렸을까? 그 理由는 確實치 않으나 아마도 돈 때문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가 “朝鮮文壇”을 廢刊했을 무렵에는 淸 生活이 곤궁했던 것 같다. 두 차례씩이나 서울을 떠나 한 때의 緣故地였던 平北, 寧邊으로 가서 寧邊中學校와 崇德中學校에서 教鞭을 잡은 일이 있는것만 봐도 짐작이 가는 일이다.

當事者인 春海는 이 點에 關해서 1968年에 이르러서야 겨우, 「大衆小說로 轉向한 것은 原稿料問題도 있었다.」고 잘막하게 告白한바(“月刊文學”에 連載한 「“朝鮮文壇”의 回顧」) 있을뿐 그의 大衆文學에로의 轉向에 對한 理由와 動機를 一切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以上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가 이따금 쓴 雜文 속에서 진하게 풍기는 것은 역시 恨嘆과 生活苦가 아닌 가 한다.

그러던 무었 때문에 春海는 그의 人生航路와 文學의 行路를 一時에 바꿔 놓은 文藝誌 廢刊에 그토록 心血을 기울었던가? 거기에는 그다지 特別한 動機는 없었던 것 같다. 當時 그는 金東仁이 하던 “創造”에 “눈 오는 밤”이라는 作品을 連載하고 있었는데, 同誌가 財政難으로 갑자기 廢刊되는 바람에 執筆을 中斷하게 되자 그것을 못내 아쉬워 하고 있었다.

그 때의 얘기를 春海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던 어느 날 妻인 田榮澤의 소개로 李光洙를 만나게 되었다. 셋이서 이런 저런 얘기 끝에 우연히 “우리 文藝雜誌 하나 하자”는 얘기가 나와 資本은 내가 내고 主宰는 李光洙가, 編輯은 내가 하고 주요한 田榮澤이 돕기로 했다.」(“朝鮮文壇”의 回顧)

이에 對해 田榮澤은 「妹夫人 方仁根이 찾아와서 “創造”를 계속하는 셈으로 文藝雜誌를 하자고 하기에 나는 春園을 추천하여 그를 中心으로 次代의 文人을 길러내는 일을 해보라고 해서 당장 方과 같이 그를 찾아가 相議한 결과 그도 快히 승락하여 마침내 方의 出資로 出世한 것이 李光洙 主宰 “朝鮮文壇”이란 雜誌였다.」(“創造”와 “朝鮮文壇”과 나)고 해 春海와는 조금 다른 主張을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作家 洪曉民은 1958年 “現代文學”에 連載한 “文壇側面史”에서 「平

壤에서 “靈臺”라는文學雜誌가發行되어 나오던 때이다. 이靈臺와는雜誌는林長和를中心하여優秀한詩人和小說家들이執筆하였다.…中略… 그러나春海는 이곳에執筆이 못 되어憤然히 서울에 와서春園을 내세워“朝鮮文壇”이란文學誌를 냈다.」라고 해마지春海가“靈臺”에서주대접을받고오기로“朝鮮文壇”을創刊한것처럼비치고있다.

하기야若冠인 나이로 봐서能히그런오기를부릴만하다고할지는모른다. 그러나깊이생각해보면,아무리칠부지기로父母에게서몰려받은全財産을그런오기로날렸을것같지는않다.그것은春海가끝내는집까지팔아넣어가며“朝鮮文壇”에全力投球했을뿐만아니라同誌에 강한愛着을가지고있었던事實만봐도능히알수가있다.

## 6

春海가얼마나“朝鮮文壇”을아끼고사랑했는지「“朝鮮文壇”의回顧」에서그는이렇게述懐하고있다.

「“朝鮮文壇”은더해나갈수가없이어려워져이제는집을팔아서몇號를더내었다.…中略… 친구에게돈을더팔수도없었다.그렇다고누구하나도와주는사람도없고電話팔고집팔고빈털털이가되었다.나는눈물을머금고廢刊할수밖에없었다.…中略… 꿈쩍없이“朝鮮文壇”을죽이고나니어린아이죽은것을보는것같아 가슴이아프고쓰러졌다.나는미친듯이술만날마다먹고거리를헤매었다.울면무슨소용이있으리오, 아이를죽이고난후에도이렇게슬프지는아니할것이다.」

위의回顧文에서본바와같이그의“朝鮮文壇”에對한愛着과全財産을아낌없이내놓은行爲는누가봐도25세의文學青年으로서는아무도뒤따를수없는크나큰勇斷이었다고해야할것같다.

그러나안타까운것은“朝鮮文壇”이春海個人만의것이아니라文壇의公器였을진데,그것이쓰러지는데아무도도우려하지않았다는事實이다.

그런데도春海는아무도탓하지를않았다.그저「“朝鮮文壇”을위해서가진風波다겪은것을생각하니一生의운명은야릇한것이라느꼈다.」고運命을앞세워체념하면서「한주생파란곡절이나보다많은사람도드물것이다.」라고自嘆할뿐이었다.

그는그만큼착하고암전한성품이었던것같다.돈이있으면文友들을料亭으로초치하고妓生과珍味를걸들인호화酒宴을배풀어그들을즐겁게해주었고,電話를

판아서까지 稿料는 꼬박 꼬박 지불하였다고 한다. 洪曉民도 그를 가리켜 「春海는 양전하기로 有名하였다.」(文壇側面史)고 前提하고 「“朝鮮文壇”에서 일하면서 春海도 역시 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말해 술안먹고 샌님같던 그의 性品을 立證하고 있다. 그런데 春海에게 가장 먼저 등을 들린 사람은 李光洙와 田榮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春海가 모든 文人들에게 誌而을 開放하여 “朝鮮文壇”을 汎文壇誌化하자고 主張한데 對해 그들이 反對함으로써 비롯되었다. 그 사실에 對해 田榮澤은 「그 뒤 方은 原稿를 널리 求하여 讀者에 마음을 사기 위해. 또 다른 文人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李光洙 主宰”를 떼버리고 康想涉, 金億, 卞榮魯등 酒荒과 文人들과 손을 잡게 되고…」(“創造”와 朝鮮文壇”과 나)라고 말해 春海를 非難하고 있으나 當時의 상황을 春海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朝鮮文壇”을 文壇의 公器로 하자, 文人은 누구나 글을 쓰도록 하자고 했더니 春園派는 안된다고 했다. 결국 나는 春園과 틀러서 東大門 밖 龍頭洞으로 이사하고 비로소 文人들에게 門戶를 開放했다. 그러자 稻香 想涉, 憑虛, 月灘, 八峰, 白華, 鷺山, 辛夕汀, 徐廷柱등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春園과 나는 사이가 벌어지고 말았다. 공교롭게도 春園 요한 田榮澤이 모두 以北이요 나만 南道이며, 그들은 修養同友會 會員이요, 나만 빠져서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朝鮮文壇”의 回顧)

아름든 그런 경로를 겪으면서 春海는 “朝鮮文壇”을 韓國文學史上 最初의 文壇誌로 만들어냈으니 그 點에 있어서는 春海가 李光洙보다 한 발 앞선 先驅者인 셈이다.

春海는 禮山이 故鄉이면서도 禮山에서 산 歲月보다 他鄉이나 他國에서 보낸 歲月이 훨씬 길다. 일찌기 서울에서 新學間(培材學堂)을 배웠고 中學과 大學을 日本에서 마쳤다.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으나 歸國 후 한 때 平壤과 寧邊등지에서 살다가 “朝鮮文壇”을 창간했던 1924년경부터는 6·25 때의 피난地를 除外하고 줄곧 서울에서 生活하였다.

“現代文學” 등의 文人住所錄을 보면 서울에서도 城北區에서 가장 많이 살았는데 그가 他界한 곳도 城北區 신장위洞이었다.

## 7

그는 1960年代에 들어와서는 作品보다 雜文을 가끔 썼는데 그의 글에서 末年의 어려웠던 生活 형편을 엿볼 수가 있다.

「나는 “朝鮮文壇”을 廢刊하고 고생 길에 들어 갔는데…」(1963 “思想界” 文藝

特別增刊號 “北青의 意志 曙海”)

「이제 나도 60이 넘고 늙었다. 憑虛가 살았으면 내포래 …中略… 月灘도 昨年에 回甲이었다. 우리 代身 月灘이나 오래 살게! …中略… 슬픈지고 내 쉬 가마. …中略… 설마하니 거긴(저승) 血壓問題도 없고 두 번 죽지도 않을거야. 우습고도 울음난데이.」  
(1962 “現代文學” 12月號 “憑虛懷古記”)

「“참 春海도 病中이라지?”

“응, 나도 건드렁 건드렁 해. 아마 곧 想涉의 뒤를 따를 것 같애. 참 오늘 모인 김에 내 賸 儀金은 特別割引을 해줄테니 先金으로 내게. 그 돈으로 藥이나 쓰게.”」(1963 “現代文學” 5月號 “想涉을 땅에 묻고서”)

이렇듯 回甲을 넘겼을 뿐인 나이에 悲感한 얘기들을 여기 저기 쓴 것을 보면 健康마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던 그는 10餘年을 더 살다가 1975年 正月 서울의 自宅에서 쓸쓸히 世上을 떠났다. 그가 운명하자 生前에도 그랬지만, 文壇은 끝내 그의 죽음조차도 外面했다. 웬만한 作家의 죽음에도 다투어 追慕特輯을 내던 文藝誌들은 거의 沈默으로 一貫했었다.

文協 機關誌 “月刊文學”은 그 해 3月號 맨 끝장 “文人近況錄”欄에 그의 訃音을 지나간 얘기로 이렇게 적었다.

「方仁根(小說家)：1975年 1月1日 새벽 3時30分 老患으로 서울 성북구 신장위동 自宅에서 別世했다. 향년 76세. 方氏는 1933年 日本 中央大를 卒業 文藝誌 “朝鮮文壇”을 발간하는등 新文學 開拓에 功이 크며, 代表作으로는 “魔都의 향불” “새벽길” 등이 있다. 유족으로는 未亡인과 5男1女가 있다.」

※ 後記：이글은 春海 方仁根의 作家論도 아니오, 그의 作品에 對한 批評도 아니다. 다만 그가 우리나라 新文學 開拓者의 한 사람이며, 當時로서는 唯一한 禮山人이었음을 忠南人, 特히 禮山人에게 喚起시키고저 썼을 따름이다. - 筆者 -

筆者 - 1954年 文化世界誌에서 詩「梵魚寺」로 金東鳴 先生의 薦으로 文壇에 오르고 中都日報 文化部長, 大田日報 編輯局長, 論說室長 歷任.

## 石泉 田日祥公 行狀

공의 諱는 日祥이요, 字는 義仲이니 潭陽田氏는 姓을 얻은지 五百餘年인데 벼슬이 끊이지 않았고, 中世以下로 五代를 연이어 武官으로 현달하였다. 공이 庚辰(一七〇〇 숙종二六) 二月十二日에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奇表가 있어 즐겁게 놀때도 범인과 같지 않아 軍陣의 놀음을 좋아하고 자신이 장수가 되었다. 차차 장성함에 어른들의 訓飭을 받아 책을 읽되 몇번보면 문득 다 외웠다. 나이 二十二歲되던 辛丑年에 무과 第二等으로 뽑혀 宣傳官을 拜命받고 겨우 두달 뒤어서 春堂臺(창경궁에 있는 과거 보는 곳) 內試에서 片筋을 세번 쓰아 세번을 다 맞추니 特旨로 절충장군에 승진되었다. 이어 고령 첨사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守禦千總이 되고 다시 단천부사를 제수받았으니 그때 나이가 二十六歲였다. 戊申年에 羅州營將이 되었는데 난리끝에 湖南의 賊徒들이 횡행하였다. 공이 그들을 잡아 섬멸하고 도적의 피수로 八壯士라 자칭하는 한놈을 잡지 못하였는데 하루저녁에는 그놈이 산에 올라가 공을 부르며 욕하고 꾸짖는지라 공이 곧 헌옷으로 갈아입고 혼자 가서 손수 椎槌(참나무 채찍)로 顛頭(모두=해골)를 파쇄하고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에 군관을 불러 가서보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엄과 명성이 크게 전파되었다. 또 鈎鉅之政(구거지정=內情을 잘 탐사하는 行政)을 잘하여 發姦摘伏(발간적복=숨겨있는 일, 정당치 못한일을 잡아내는 것)하기를 귀신 같이하니 蒲戲가(포희=노름, 도박) 절종되고 道不拾遺(도불습유=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않음, 즉 백성들이 정직하고 결백함을 말함)하야 南州의 士女들이 지금도 입이 차게 칭송하고 있으며, 말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도 공의 이름과 字를 외우고 있으며, 공의 이름이나 字를 써서 부적을 만들어 학길을 쫓는데 쓰는이도 있었다. 진군되어 돌아온지 얼마 안되어 다시 三陟營將을 제수 받았으니 대개 공이 도적을 잘 다스리는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연이어 營將을 제수한 것이었다. 三陟에 있을적에는 軍政의 일로 장계를 올려 三陟府使를 파직 시켰으니 營將으로서 부사를 파직시킨것은 또한 近來에 있지않은 일이었다. 內職으로 돌아와 禁軍將이 되고 龜城부사를 拜命하였으나 赴任치 않았고 또 연이어 居昌, 昌原等의 부사를 제수하였으나 다 부임하지 않았다. 이때에 공의 위엄과 명망이 크게 나타나서 조정에서 장차 關帥를 삼고자 하였으나 마침 좋아하지 않는 이가 있어서 中傷했기 때문이었다.

친상을 당하여 복을 마치고 곧 慶源府使를 제수하였으나 親病으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軍職으로 재직하면서 禁軍將 軍門千總 別將등을 제임한 것이 전후 여러번 이어서 다 기록하지 못한다. 丙辰年에 漆谷府使가 되어 자기 봉록을 捐出하여 처음으로 整飭逸稿를 刊行하였고, 辛酉



年에는 三和防禦使가 되었다. 그때에 郡守三人이 연이어 죽었는데 或傳하기를 妖鬼가 있어서 造禍한다 하였다. 조정에서 의론하기를 오직 공이라야 진압한다하여 특별히 공을 이 고을에 任用하였다. 공이 부임하던 날 즉시 시종들을 물리치고 廢堂에 홀로 태연히 앉아있음에 魘妖가 근절되고 訛說이 크게 없어졌다하니 이는 다 공의 毅氣에 感服한 것이다.

癸酉年에 茂山府使가 되고 乙丑年에는 昌原府使가 되었다가 丁卯年(一七四七 영조二三)에 全羅右水使로 발탁되었다. 대개 공이 妙年에 급작스럽게 絳玉(비옥=즉, 당상관의 복식. 붉은옷과 玉冠子)에 올랐으나 성품이 엄숙하고 결백하여 말은일에 坦直하고 또 武夫의 本色인 氣節(기절=기개가 높고 지조가 굳음)을 숭상하고 睦睦(휴친=발두둑. 즉 거리와 경계를 말함)을 버리고 塗澤媚世(도택미세=교연영색으로 세상의 조류에 영합함)하는 풍습을 깊이 미워하였고, 사람과 더불어 軒輊(헌지=일의 대소, 경중, 우열을 말함)를 좋아하였으나 뜻이 옳지 못한 데가 있으면 비록 當塗世豪의 일이라도 문득 멸시하며 비록 친구라해도 옳지 못한이가 있으면 즉 면에서 물리치고 조금도 回護(회호=과실을 덮어주거나 변호하는 일)하지 않는 연유로 칭찬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따라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공이 少時에 명망이 藹藹(애울=무성함을 말함)하였으나 중간에 수십년을 州縣에서 오락가락하고 踰躐(증등=길이 막혀 피로해서 어정거리는 모양)을 면치 못하다가 이제야 除授를 識者들이 그 늦은것을 애석하다 하였다. 그 闡任(곤임=水使나 兵使)에 있을때는 오직 날마다 軍政을 수리하고 武備를 정돈하기에 근실하고 항상 정계를 울려 邊備의(邊守) 疎한 폐단을 질실하게 진달하여 累千言을 올렸는데 말이 심히 慷慨하여 備邊司에 報告되지 못하였다. 水使로 재임시에는 공이 武裝을 하고 배에 올라 三軍을 지휘하니 호령이 명숙하고 旌旗가 變彩하니 軍中에서 바라보는 사람마다 神將이라고 指目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때 邊將中에서 貴家子弟로서 권세를 믿고 放縱하여 기를을 범하거늘 즉시 拿捕하여 棍杖 三十度를 치고 郡邑에서 위협하는 자가 있으면 啓奏하여 파직하고 연이어 몇사람의 군수를 파직시키니 一道가 震懼(진접=무척 두려워함)하여 南도의 연안에서 右水使의 威風이란 말이 있고 巷誦에 오르기까지 하였다. 己巳年에는 竹山府使로 나갔는데 옛날 창고가 좁아서 露積하는 폐단이 많았다. 공이 곧 計劃하여 백성의 힘을 들이지 않고 손수 재목을 들어 勸勉하니 數月이 못되어 累十架의 새 창고가 높다랗게 세워지니 백성들이 신기하다고 감탄하였다. 庚午年에 慶尙左兵使로 발탁 계수하였으나 親老로 인하여 부임하지 못하였고 壬申年에(一七五二) 文職으로 驪州牧使에 제수되어 미처 부임하기 전에 金浦에 도적이 일어나자 조정에서 군수를 파직하고 공더러 겸임케 하였으므로 金浦에 먼저 부임하였다. 여주는 畿內의 弊府이었다. 공이 殘民을 蘇生시키고 弊習을 개혁하는 뜻을 두어 曄

뿐만 바 많았으나 곧 罷歸되어 실행하지 못하였다.

癸酉年(一七五三 英조二九) 十一月初 七日에 結城里第에서 考終하니 享年 五十四歲였다. 十州郡과 二鎭 및 兩關을 거치고 그 중간에 부임하지 못한 곳도 많았다. 공이 천부적 자품이 偉異(위이=위대하고 특이함)하여 騰畧을 겸비하였으며 身長이 八尺을 넘고 狀貌가 豊偉하고, 白折하였으며 성극한 수염이며, 능능하고 威猛한 기상이 있으므로 觀相하는이가 연함표두(燕頰豹頭: 연함표두=貴人の 人相. 제비턱에 호랑이 머리를 한 얼굴 遠國의 封侯가 된다는 人相(後漢書班超가時에 燕頰虎頭라 함)라 하였으며, 膂力이 뛰어나 강한 활을 당기고 駿馬를 달리는 것은 스스로 天才의이었다. 전후로 벼슬을 하면서 병예를 람내지 않고 굳세고 엄숙하게 다스렸으므로 田某의 任所에서는 怨傲(원주=무섭고 몹시 싫어하는)의 사태가 생긴다는 임금님의 말씀이 筵席(君臣이 모여 자문奏答하는 자리)에서 나오기까지 하였다. 일찌기 三和府使로引見하실적에 王께서 이사람 형체가 다 크게 쓸만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禁軍將으로 溫泉에 扈駕할적에 王께서 武士들에게 下教하여 이르기를 전번에 射班中에서 魁然(괴연=特別 하다는 뜻)하고 傑特한 者를 보시고 이상하다 하였더니 지금보니 田某로서 果然壯士라 하시었고 그뒤에 都監別將으로 春塘臺 할소는 곳에 나가 미세한 과실로 잡혀 들어가 곤



石泉 田日祥公 影幀

장을 맞고 즉시 射列에 나가 연발로 관력을 맞추니 王께서 가상히 여기시고 參將軍이라고 칭찬 하시었다. 이렇듯 사랑하심이 常例에 지났으나 그 官職은 대개 副望이나 末望으로 받은것이 많았고 시절은 昇平한 時代이었기 때문에 才와 勇을 百의 一도 試用해보지 못하였고 또 進塗가 無窮하였으나 몸이 中年에 갑자기 돌아가시니 公議에서 哀惜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슬프다. 어찌 운명이 아니겠는가.

공의平生行蹟은 細節은 不顧하고 卓越하여 人不可及한 것이 많았으며 또한 天性이 지극히 호스스럽고 兄弟間의 우애가 돈독하였다. 길으로는 엄숙하고 사나운것 같으나 속마음은 실제로 인자하고 평탄하여 광범하게 人物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기를 몹시 좋아하였다. 그 외유에 있을적에 빈한한 친구, 가난한 일가들이 장꾼 모여들듯 하였으나 눈쌀을 찌푸리지 않았다. 平常 때에는 날마다 擊鮮(격선=싱싱한 쇠고기)을 갖추어 놓고 親友들을 請하면 座席에는 항상 손님이 가득하였으며, 飲博(음박=음식과 바둑)이 淋漓(임이=많다는 뜻)하였다. 언제나 有無를 가리지 않고 남의 困難한것을 보면 千金을 草芥같이 도와주었으며 친구의 자제가 처음으

로 베풀하여 부일할 여비가 없어 곤란한 처지였는데 馬를 살 資金을 대주어 구제하였으며 가난하여 장사를 치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옷장에 두었던 옷베를 내주어 장사 지내게 하였다.

그러했기 때문에 高風義氣가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퍼져 歿한 후에 모두를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으며 심지어 縵服(시복=3月服)을 입는 이도 있었다. 이것이 비록 공의 疏節(소절=소탕한 행절)이나 또한 가히 사람들이 공에게 깊이 감복한것을 보겠더라.

이제 賜祭하라는 下命을 받고 글을 짓는데 삼가 벼슬을 지낸 사직과 梗槩(경개=대략과 같음)를 서술하여 삼가 館閣(관각



石泉閑遊圖

=弘文館·藝文館을 말함) 先生의 材擇(材料를 택해 달라는 뜻)을 바랍니다.

《石泉閑遊圖는 가장 오래된 風俗畫중의 하나이며, 製作年代가 分明하고 대상人物의 身元이 確實하여 風俗畫의 出現時期와 그 성격등을 규명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格조높은 결정적인 資料이다. ....

虎班등의 生판상을 엿볼수 있는 일반 文化史나 社會的인 側面에서도 만만찮은 자료구실을 할수 있을 듯 하다. .... 崔完秀: 禮山名賢 影偵 遺品拜觀記》



## 己巳 새해 新年交禮會

기사년 새해를 맞아 1월 4일 문화원에서 주최한  
신년교례회가 군청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박병선 국회의원과 류덕현 예산군  
수를 비롯한 각 기관 단체장과 사회인사 250여명이

참석하여 새해 인사를 나누면서 '89년 한해도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 모두가 한몸이 되어 노  
력 할것을 다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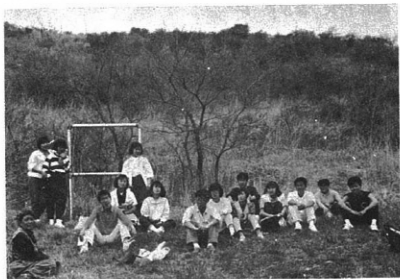


## 文化院 1988年 定期總會

'89년도 문화원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일 문화원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날 총회에는 회원 37명이 참석하여  
'88년도 한해를 결산하였으며, 아울러  
'8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이의없이  
통과 시켰다. 또한 문화원이 더욱 활성화  
될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금년도 문화원  
사업에 적극 참여와 관심을 갖기를 다짐  
하였다.



## 뿌리모임 任存城 踏査

지난 4월 23일 유적지 순례단 뿌리모임은 '89년도 첫 답사지를 7 월경에 있을 충남 향토사 학술 세미나 개최 장소인 대흥면 동서리에 소재한 대원사 및 임존성을 찾았다.

이날 답사에는 예산 향토사 연구회원인 이수 여사도 함께 동행하여 백제 부흥군의 본거지였던 임존성과 묘순이 바위에 얽힌 전설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며 우리고장에 살아 숨쉬고 있는 백제 부흥군의 정기를 직접 느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녹진 꽃꽂이회 첫발표展示



1985년 3월에 녹진 꽃꽂이회로 발족한 후로 충남 지부에서 그 첫번째 전시회를 지난 4월 28일~29일 양일간 문화원 전시실에서 갖았다.

꽃의 질서, 공간운동이란 제목으로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수 있는 꽃꽂이 재료로 여러가지 다양한 소재로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움과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

기를 잘 연출해 내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메말라 가는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과 정서 함양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된것 같다. 앞으로 지역의 꽃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 할것으로 기대된다.



農民賞 정 계 훈씨  
自活賞 송 화 숙양

매헌 윤봉길 의사를 기리는 제 15회 매헌 문화제가 4월 28일 전야제인 문화의 밤을 시작으로 4월 29일 윤의사의 생가가 있는 덕산면 시량리 충의사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충의사 제전에는 강용식 문공부 차관, 심대평 충남지사, 박병선 지역국회의원, 각급 기관장, 유족, 월진회원 그리고 주민등이 참석 하였으며, 대전 시립연정국악원생의 은은한 제례악 속에 헌관인 류덕현 예산군수의 분향 헌작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윤규상 월진회장의 독축현관

### 忠義祭典에 沈大平忠南知事 文公次官 參禮

### 梅軒文化行事는 島中島서 盛況裡

제배에 이어 대통령을 대리하여 강문공차관의 헌화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제례행사가 끝난후에는 공군부대의 공중 곡예 쇼가 펼쳐졌다.

문화행사로는 씨름, 궁도, 서예 백일장 및 농악, 널뛰기 등 다채로운 민속행사도 펼쳐져 주민 2만여명이 참가하는 대축전임을 느낄수 있었으며, 해마다 실시되는 이 문화제는 명실공히 예산 군민들의 축제로서 우리고장의 자랑인 윤의사의 애국정신과 농촌부흥운동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는 귀중한 기회가 되고있다.

이날 월진회가 시상하는 농민상은 정계훈 씨 (53. 서산군 팔봉면) 에 또 소년소녀 가장 자활자상은 송화숙양 (19.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에 수여됐다.



만물이 눈을 뜨고 꽃 피우는 5월, 마야호로 예산의 문학도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文香의 고장 예산은 「예산문학」외에 '80년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문학의 기운이 싹텄다. 탁마독서회, 문학사상연구회, 무의문학동인회, 글터문학회, 명인문학회가 그것이다. 비록 이들의 연륜이 짧고, 아직은 연약한 떡잎에 불과하다 볼 수도 있으나 이들의 움트는 싹은 싱싱하고 이들의 꿈은 봄벌처럼 찬란하다.

이들은 오는 5월 13일 오후 4시 50분 부터 7시 10분까지 예산문화원 1층 회의실에서 「시낭송회」를 갖었다. 각기 흩어진 예산 문학인의 친목과 일로매진(一路邁進)의 문학발전을 도모하고, 기계주위와 물질명명주의에 메말라가는 정서활동, 정신문화의 고양과, 예산 문학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맑고 푸른 청춘의 노래가 찾아온 모든 문호인의 심금을 타고 돌며 성황리에 마련되었다.

## 文好人을 爲한 詩朗誦의 밤 盛況裡

— 젊은이들의 5개서클회원 合同으로 —

「탁마독서회」는 '82년에 발족, 예산의 미혼규수들로 구성된 독서단체이며 창작단체이다.

'85년부터 독서를 통해 고양된 의식을 바탕으로 창작문집을 발행, '89년 현재 4집을 출간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3월 창간회보를 발행, 매회 20면 정도의 회보를 년4회 발행할 예정이다. (현재 회원 18명)

「문학사상연구회」는 예산농업전문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학내 씨름이다. '89년 여름방학을 이용 창작문집을 간행, 예산 향토문악 발전을 위해 가일층 그들의 의식을 표출시킬 것이다. (현재 회원 30명)

「무의문학동인회」는 '86년 9월에 출범, 예산의 유일한 동인회이다. 이들은 지난 2년 남짓의 기간동안 2권의 동인지 발간과 3회에 걸친 시화전, 시낭송회등 의욕적인 창작활동을 했다. 현재 동인은 5명이며, 또 다른 시집 출간을 위한 준비중이다.

「글터문학회」는 '87년 5월에 출범하여 5회에 걸친 회보발행과 1회의 시화전시회를 가졌다. 현재 회원은 10명이며, 5월 12일 창간호 문집을 발간했다.



「명인문학회」는 '88년 봄에 출범, 가장 늦게 싹이 튼 문학회이나, 그 열정만큼은 놀랄만한 것이다.

「향천문예회」로 시작한 이 문학회는 지난 3월 「명인」으로 개명, 그 이름에 걸맞게 밝은 거보를 내리고 있다. 현재 회원은 30명 정도이며, 9월쯤엔 화려한 창간문집이 발간될 것으로 보인다.

(李明宰 記)

## 임존성 답사기

예산중앙고등학교 김 동 원

오늘은 일요일. 날씨가 유난히 쾌청하게 맑았다. 예산 문화원 주최로 고등학생들의 유적지 답사가 있는 날이다.

나는 아침 일찍 설레는 마음으로 맛있는 김밥과 몇 개의 음료가 든 캔을 빨간 가방에 집어 넣고 간단한 등산복 차림으로 유적지 답사에 참가하였다. 우리를 태운 관광버스는 아스팔트길을 신나게 달리기 시작했다. 버스 창문을 통해 마치 농업단지와도 같이 잘 정리된 논밭들이 아름답게 펼쳐졌다. 늘 살면서도 몰랐으나 이렇게 달리는 버스 속에서 내다보는 농촌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시원한 바람이 창에 몰아 부친다. 시원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임존성...

임존성이 우리 고장 대흥면에 있다는 것은 몇 년 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찾아가 답사를 한다고 하니 실로 내 마음은 설레는 것이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새 창밖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기로 이름난 예당 저수지가 시원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물결은 비단결처럼 자랑하고 있었다.

이윽고 버스가 멈추었고 우리는 차례로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련사를 향해 산길을 따라 질서있게 올라갔다. 이미에는 어느새 땀이 송글송글 맺혀 얼굴을 따라 흘렀으나 우리는 계속 걸었다. 산길 양 옆에는 크고 작은 풀들이 잘 우거져 있어 싱그런 향기가 바람을 타고 코에 스쳐 간다. 이렇게 그윽한 풀잎 향기를 맡으며 산길을 걷노라니 문득 옛날 옛적 우리 선조들의 숨결 속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다. 이상했다. 아마도 풀잎 하나 하나에도 아직도 옛 백제인들의 혼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 마침내 대련사에 도착했다. 대련사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큰 고목나무들이었다. 앞서 도착한 아이들이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나도 그리로 가 앉았다. 아- 이 시원한 쾌감! 이런 그늘을 만들어 준 나무가 너무 고마웠다. 마침 문화원장님께서 나의 옆에 계시기에 여쭙보았다. “원장님 이 큰 고목 나무들은 한 몇 년쯤 됐을까요.” “한 400년쯤 됐을거야.” 하시며 나무를 올려다 보시는 원장



님의 시신을 따라 나도 다시 한번 자세히 바라보니 400년이 아니라 천 년도 더 된듯 싶어 보인다. 나무를 보면 알수 있듯이 대련사는 역사가 오랜 절로서 백제 부흥군의 중심 인물이었다던 토침 스님이 창건했다고 하는데 대웅전에는 1750년에 그려진 아미타불의 탱화와 도침스님의 영정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또 앞 마당에는 연대 미상의 5층석탑이 고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대련사를 나 돌아본 우리 일행은 약수물로 목을 축인후 이 수 할머니의 안내로 임존성을 향해 산등성이를 올라갔다. 상쾌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골을 흐르는 시원한 소리도 들으며, 십십 산 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짧은 소매를 입은 팔뚝이 나무가지에 스쳐 따라왔다. 우리는 과달개 잔뜩이 깔려있는 빈 공간에 당도 했다. 임존성 이었다. 풀밭에 주저앉아 우리를 안내 해주신 할머니로부터 묘순이 바위에 얽힌 전설과 함께 임존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란성 쌍둥이를 낳으면 하나를 죽여야만 되는데 남장을 시켜 숨기며 살다가 결국 어머니는 딸 묘순이를 죽게 한다는 남존여비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 그 옛날의 전설이었다. 또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임존성은 옛날 백제가 망했을 때에 복신과 토침 그리고 후치상지가 백제 부흥을 위해 군사를 이끌고 싸우던 곳으로 아주 중요한 역사의 현장으로서 장중한 성곽의 위용으로 하여 백제 200여성 가운데 손꼽히는 성이었다고 한다. 문화원장님의 설명을 들은 뒤 바라본 주위 산천은 이제 사로운 평범한 산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유구한 역사가 이어져 오는 맥 속에 옛 선조들의 숨결과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수있었다. 그냥 들담 처럼 쌓여져 있는 이 임존성, 정말 임존성은 우리 고장의 자랑스런 역사의 산증인 이었다. 또 한가지, 이 임존성은 동서북이 지대가 높고, 서남쪽이 낮아서 물이 묘순이 바위 부근에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 수공식 성책(水功式城柵)을 쌓아 물을 가득어 놓았다가 다급할땐 수문을 열어 적을 몰살시킬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 더욱 유명했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점심을 맛있게 먹고 녹지 공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간단한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진 후 이제는 임존성 바로 위에 있는 산의 정상에 향해 출발하기 시작했다. 겨우 오른 정상에서 높이 솟은 바위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 보니 감개가 무량했다. 그 아래산 옆에 보이는 저수지와 마뚝관처럼 잘 성리된 논경지, 그리고 바로 앞에는 조금 전에 본 임존성의 둘레도 보였다. 문득 우리 백제 군사들이 천황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의 환상들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성 밑의 적에게 활을 쏘고 성벽을 기어 오르는 적을 밀어 부치며 와 - 와 -, 함성 속에 용감히 싸우고 있는 모습, 그리고 떠밀려 가며 허우적대는 적군들.

나는 오늘 이 답사로 인해 임존성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고장도 과거에는 아주 훌륭한 백제의 문화 중심지였다는 사실과 그 피를 이어 살고 있다는 긍지를 느낀 것은 가슴 뿌듯한 체험이었으며 한편 어느 고장보다도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와 충절의 고장으로 불려지는 것도 이해가 되었다. 기념 촬영 후 우리는 하산길에 섰다. 내려가는 길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으며, 잠시 뒤 돌아 본 순간, 보이는 것이라곤 나무들뿐 자연이란 이런 것인듯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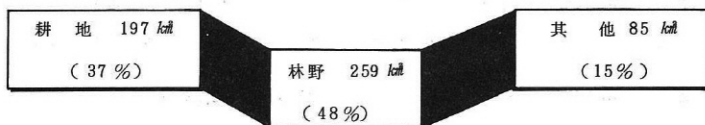
산을 다 내려오자 우리는 의좋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얽힌 우애비를 향해 걸었다. 이 비석의 발견으로 이 성만, 이 순 형제의 전설같은 이야기는 실화로 입증되었다고 하는데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이 의좋은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고장에서 유래했음은 무척 놀랍고 또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 할머니께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 우리고장을 더욱 빛낼수 있는 사람이 되어 달라고 당부 하셨다. 할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차에 올라 오늘 하루 일을 되돌이켜 보니 많은 것을 얻게 해 준 유적지 답사였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껏 호뭇했다.



## 郡 勢

○ 面 積 ————— 541 km<sup>2</sup> (道の 6.5%)



○ 家 口 ————— 28,942 家口 (道の 6.3%)

・ 農 家 : 18,645 家口 (64.4%)

・ 非 農 家 : 10,297 家口 (35.6%)

○ 人 口 ————— 136,303 名 (道の 6.8%)

・ 男 子 : 68,233 名 (50.1%)

・ 女 子 : 68,070 名 (49.9%)

○ 行 政 組 織

・ 行政區域 : 2 邑 10 面 286 個 里

・ 機 構 : 2 室 9 課 4 事業所

・ 公 務 員 : 658 名 (本廳 289, 邑面 369)

○ 産 業 構 造

農 水 産 業	鎮 工 業	商 業 및 서비스
64 %	13 %	23 %

○ 道 路 ————— 26 個路線 268.7 km (鋪裝率 43%)

・ 國 道 : 4 個路線 71.8 km

・ 地 方 道 : 6 個路線 68.6 km

・ 郡 道 : 16 個路線 128.3 km

○ 河 川 \_\_\_\_\_ 186 個 所 361 km

○ 教 育 施 設

· 幼 兒 施 設 : 47 個 所 (公 立 5 , 私 立 5 , 併 設 37 )

· 學 校 : 58 個 校 (初 38 , 中 11 , 高 8 , 農 業 專 門 大 1 )

○ 工 場 : \_\_\_\_\_ 87 個 業 體 3,380 名

○ 特 產 物 : \_\_\_\_\_ 사 과 28 千 畝 ( 160 億 圓 )

## 財 政 規 模

○ 總 規 模 \_\_\_\_\_ 22,868 百 萬 圓

○ 一 般 會 計 \_\_\_\_\_ 20,940 百 萬 圓

歲 入	
自 體 收 入	6,416 (30.6%)
· 地 方 稅	4,647
· 稅 外 收 入	1,769
支 援 收 入	14,524 (69.4%)
· 交 付 稅	7,231
· 補 助 金	7,293



歲 出	
社 會 福 祉 費	4,193 (20.0%)
地 域 開 發 費	5,925 (28.3%)
產 業 經 濟 費	2,998 (14.3%)
一 般 行 政 費	6,386 (30.5%)
其 他	1,438 (6.9%)

○ 特 別 會 計 \_\_\_\_\_ 1,928 百 萬 圓

上 水 道	住 宅	醫 療	農 工 團 地	새 마을 所 得	其 他
697	118	692	194	196	31

○ 運 用 方 向

- 住 民 福 祉 財 政 ————— 住 民 輿 望 事 業 解 決 重 點
- 緊 縮 節 約 財 政 ————— 約 束 을 지 키 는 責 任 財 政

## 우리고장의 發展相

	'83 年	'88 年	
○ 耕 地 整 理	4,527 ha	8,512 (188%)	78%
○ 水 利 安 全	11,764 ha	13,189 (112%)	86%
○ 農 機 械 普 及	9,565 台	14,239 (149%)	
○ 道 路 鋪 裝	26 km	117 (450%)	43%
○ 上 水 道 施 設	4,054 戶	5,234 (129%)	
○ 下 水 道 施 設	21 km	26 (124%)	
○ 醫 療 機 關	31 個所	36 (116%)	
○ 企 業 體	42 個業體	87 (207%)	
○ 電 話 普 及	11,129 台	26,835 (241%)	93%
○ 自 動 車 普 及	1,263 台	3,544 (281%)	

## 郡政의 與件과 課題

	與 件
○ 民 主 發 展	————— 多 樣 한 住 民 懇 求 噴 出
○ 地 方 自 治 制 實 施	————— 地 方 行 政 需 要 增 大
○ 西 海 岸 時 代 開 幕	————— 背 後 都 市 로 浮 刻

課 題

- 郡民의 大和合 \_\_\_\_\_ 地域의 共感帶形成
- 自治力量提高 \_\_\_\_\_ 自律과 責任意識涵養
- 地域責任行政 \_\_\_\_\_ 郡民에 對한 信賴基盤擴充
- 地域開發促進 \_\_\_\_\_ 西海岸背後都市로 育成

새歷史 創出을 爲한 地方的 所任完遂

郡政의 方向

和合하는 郡民 發展하는 禮山

- 信 賴 받 는 民 意 行 政
- 內 實 있 는 所 得 增 大
- 均 衡 있 는 地 域 開 發

力 點 施 策

- 民 主 發 展 으 로 밝 은 社 會 造 成
- 信 賴 받 는 責 任 行 政 具 現
- 完 璧 한 地 方 自 治 制 準 備
- 積 極 的 인 福 祉 水 準 向 上
- 發 展 的 인 새 마 을 運 動 展 開
- 先 進 營 農 으 로 所 得 增 大
- 鄉 土 文 化 繼 承 과 觀 光 振 興
- 均 衡 있 는 地 域 開 發 促 進

## 民主發展으로 밝은 社會 造成

### 1. 社會安定을 爲한 法秩序 確立

- 痼疾의 秩序紊亂行爲根絶 —— 集團行動 및 不法行爲 根絶
- 民主郡民意識定着 —— 遵法精神의 生活化

### 2. 다함께 參與하는 郡政具現

- 民意의 現場찾기 —— 마을, 사랑방, 營農現場 等
- 郡政의 公開 —— 重點施策 및 住民利害 關聯事項

### 3. 郡民大和合 零圍氣 造成

- 한마당 잔치 —— 邑面體育大會, 梅軒文化祭
- 愛鄉運動展開 —— 郡政消息發刊(月1回), 능금祝祭  
郷土樹種植栽(개나리, 자귀나무, 꽃사과 等)

### 4. 地域防衛力量의 提高

- 民防衛 組織의 精銳化 —— 319個隊 12千名
- 消防力 補強 —— 派出所新設, 廳舍新築 3棟, 消防車 2台

## 信賴받는 責任行政 具現

### 1. 人本行政의 實現

- 權威意識의 清算 —— 郡民과 함께 일하는 民主行政
- 正直한 公職姿勢確立 —— 郡民에게 信賴받는 責任行政

### 2. 誠實한 爲民行政 具現

- 地域綜合發展計劃 補完 —— 與件變動 및 住民輿論 反映
- 爲民施策의 擴大 —— 障礙者 苦情訪問處理, 夜間救急車 運營

### 3. 住民이 便利한 民願行政

- 綜合民願案內 窓口開設 ————— 郡廳民願室 ( 10 個機關 )
- 地籍 및 住民登錄 電算化施設 ————— 118 百萬圓
- 民願 온라인 制 實施 ————— 31 種 ( FAX 活用 )

#### 4. 一線行政力の 強化

- 行政裝備補強 ————— 車輛 4 台 , 複寫機 및 打字機 3 台
- 勤務環境改善 ————— 12 個邑面 125 百萬圓

## ————— 完璧한 地方自治制 準備 —————

### 1. 地方自治制 早期定着

- 住民教育 및 弘報擴大 ————— 自律 · 責任意識 提高
- 先進 郡民 意識涵養 ————— 地域發展의 共感帶 形成
- 自治行政 基盤造成 ————— 自治法規 및 委員會 整備
- 自主財政 擴充 ————— 經營收益事業擴大 , 내고장남매.사기 運動

### 2. 地方議會 構成準備

- 議會開院準備 ————— 議事堂 施設 補完 ( 164 坪 )
- 議會運營費 및 選舉費 確保 ————— 187 百萬圓 ( 運營費 130 , 選舉費 57 )
- 議會議員選出 ————— 12 個選舉區 13 名

## ————— 積極的인 福祉水準向上 —————

### 1. 어려운 住民生活 保護

- 保 護 對 象 ————— 3,195 家口 12,882 名
- 自立基盤造成 支援 ————— 928 百萬圓 ( 基本生計費 , 職業訓練 , 學資金等 )



- 사랑의 손길 퍼기 運動 —— 不週이웃돕기, 同居夫婦合同結婚式 20 쌍

## 2. 快適한 生活環境 造成

- 清掃裝備 補強 —— 清掃車 2 台, 牽引車 1 台, 률온박스 6 台 (59 百萬元)
- 쓰레기 埋立場 造成 —— 12 千坪 180 百萬元
- 糞尿處理場 修繕 —— 7 種 37 百萬元
- 農工園地 汚廢水 處理場施設 —— 1,127 百萬元 (3,000 t / 日)
- 街路燈 施設 —— 415 個所 62 百萬元
- 부엌 및 便所改良 —— 98 個所 45 百萬元

### 農村쓰레기 自家處理 運動展開

- 煉炭재 : 粉碎後 田畝等에 버리기      ○ 破損그릇, 유리類 : 粉碎後埋立
- 再生可能廢品 : 再生公社에 販賣      ○ 食品包裝紙類 : 집안 燒却
- 河川쓰레기 : 豫防 및 自然淨化      ○ 腐蝕性쓰레기 : 堆肥化

## 3. 밝고 健康한 郡民生活向上

- 醫療 施惠 —— 28 千家口 133 千名
- 防疫 活動 —— 消毒 410 回, 豫防接種 80 千名
- 移動 診療 —— 10 回 (奧地部落)
- 不正, 不良食品根絶 —— 檢査 및 點檢強化
- 家族 計劃 —— 1,825 名 (永久 690, 一時 1,135)

## 4. 健全家庭育成

- 敬老孝親 運動 ——
  - 敬老잔치 및 孝道觀光
  - 眼鏡보내기 150 名

- 女性活動強化
  - 主婦教室運營：1回 300
  - 主婦歌謠競演大會：1回 1百萬원
  - 主婦親善體育大會：1回 (10月)
  - 農村總角佳緣喫기：20쌍
- 青少年健全育成
  - 著名人士 招請善導教育：4回
  - 野營場施設：9百萬원
  - 趣味活動支援：5百萬원

## 發展的인 새마을運動 展開

### 1. 새마을組織의 自律力量 提高

- 民間主導能力提高 ————— 새마을組織의 強化
- 새마을指導者 精銳化 ————— 教育擴大，後繼者育成
- 바른生活運動展開 ————— 秩序，親切，清潔의 生活化

### 2. 福祉基盤 造成事業

- 새마을 가꾸기 ————— 40 個 마을 176 百萬원
- 새마을 廣域圈 ————— 7 個圈域 280 百萬원
- 鑛山地域 開發 ————— 1 個所 110 百萬원
- 低所得마을支援 ————— 7 個 마을 70 百萬원

### 3. 푸르고 아름다운 國土公園化

- 高尙象徵가꾸기 ————— 사과表象物 施設 (20 百萬원)
- 4 季節꽃길 造成 ————— 118 個所 160 km 60 km
- 路邊小公園管理 ————— 47 個所
- 꽃苗自體生產 ————— 14 種 2,870 千本

# 先進營農으로 所得增大

## 1. 連續 豐年農事 達成

- 食糧 增產 \_\_\_\_\_ 74 千 t (米穀 70, 其他 4)
- 營農 技術 向上 \_\_\_\_\_ 營農教育 13 千名
- 優良 種子 供給 \_\_\_\_\_ 88 t (適地適品種)
- 病蟲害 防除 \_\_\_\_\_ 10 回 (農藥 122 t)

## 2. 農家 所得源의 多樣化

- 사과 栽培 \_\_\_\_\_ 1,695 ha 28 千 t
- 施設 園藝 \_\_\_\_\_ 12 個園地 450 (舍所園地: 4 毛作)
- 畜產 振興 \_\_\_\_\_ 草地造成 10 ha
- 蠶業 增產 \_\_\_\_\_ 甬밭造成 12 ha (蠶網生產 19 t)
- 새마을 養殖 契育成 \_\_\_\_\_ 8 個契

### 特産物 및 土産品 開發

- 特産物: 사과, 쪽파, 不元참외, 大興참외 等
- 土産品: 도자기, 韓紙, 古家具 等

## 3. 農村地域 工業化 推進

- 農工園地 造成마무리 \_\_\_\_\_ 1 個所 32 個業體 (56 千坪)
- 創業企業體 誘致 \_\_\_\_\_ 3 個業體 59 千坪 (한뎀, 신기한 産業, 禮山電氣)
- 工場 適地 事前 確保 \_\_\_\_\_ 4 個所 68 千坪

## 4. 先進營農 基盤造成

- 耕地 整理 \_\_\_\_\_ 542 ha 4,283 百萬圓
- 農業 用水 開發 \_\_\_\_\_ 114 ha 184 百萬圓
- 機械化 營農園 育成 \_\_\_\_\_ 50 個園 620 百萬圓 (機械移秧 85%)

- 冷水湧出畚排水改善 —— 12 個所 (10% 增水)
- 生產福祉施設擴充 —— 農機械倉庫 4 棟, 共同乾燥場 1 棟
- 農地購入資金支授 —— 211 農家 2,110 百萬圓

## 5. 山林의 資源化

- 造林 및 育林 —— 造林 682 千本, 育林 1,221 ha
- 山林保護 —— 病虫害防除 414 ha, 山火警防
- 林道施設 —— 5 km 89 百萬圓
- 副産物 의 所得化 —— 410 百萬圓 (표고버섯, 밤, 떡갈잎 등)

# 郷土文化繼承과 觀光振興

## 1. 내고장 傳統文化의 暢達

- 文化財 補修整備 —— 3 個所 90 百萬圓
- 傳統文化 育成 —— 梅軒文化祭, 襟負商 및 只分村놀이
- 禮山郡民의 賞制定 —— 3 個部門 (教育文化, 社會奉仕, 孝行)
- 秋史紀念館 建立 —— '87 ~ '91
  - 延建坪: 833 坪 (紀念館 203, 公演場 630)
  - 事業費: 18 億圓 (投資額 6 億圓)
  - 事業內容: 紀念館, 公演場, 基盤施設 等

## 2. 觀光 禮山 建設

- 德山溫泉 開發 —— '88 ~ '91
  - 事業規模: 86 千坪, 304 億圓 (民資)
  - 事業內容: 豆理 3 棟, 旅館 20 棟, 商家 9 棟  
休息施設, 綜合慰樂센터 等
- 修德寺 集團施設 地區 開發 —— '88 ~ '90

### 事業概要

- 規模 : 41千坪, 112億원 (民資 104億원)
  - 事業內容 : 商家 6棟, 宿泊施設 6, 駐車場  
野營場, 上·下水道, 道路鋪裝等
- ※ 88.10.22着工

國民觀光地 (禮唐貯水池) 開發 ————— 25億원

- 1次事業 ————— 基礎施設完了 (86~88)
  - 投資額 : 980百萬원 (57千坪)
  - 事業內容 : 駐車場, 野營場 3, 鋪裝, 化粧室, 上·下水道
- 2次事業 (89~91) —————
  - 事業費 : 1,520百萬원 (民資 550百萬원)
  - 事業內容 : 進入路 및 循環道路鋪裝, 宿泊施設, 休憩室等

스쳐가는 觀光地  머무는 觀光地

## 均衡있는 地域開發 促進

### 1. 地域均衡 開發事業

道路擴張 및 鋪裝 ————— 26.4 km 5,372百萬원

- 地方道 : 7.7 km 2,100百萬원
- 郡道 : 15.5 km 3,062百萬원
- 農村所得源道路 : 3.2 km 210百萬원

宿願事業의 解決 ————— 69件 889百萬원

- 公設運動場 마무리 : 1個所 200百萬원
- 마을 進入路鋪裝 : 57個所 521百萬원
- 簡易 上水道 施設 : 1個所 40百萬원

- ・ 小規模 地表水開發 : 2 個所 27 百萬圓
- ・ 移動式 揚水施設 : 5 個所 95 百萬圓
- ・ 道路邊 乘降場 施設 : 3 個所 6 百萬圓

## 2. 都市 基盤施設 擴充

- ・ 上水道 施設 擴充 ————— 配水管等 施設 120 百萬圓
- ・ 下水道 施設 ————— 600 m 100 百萬圓 後
- ・ 消防道路 開設 ————— 1 個所 100 百萬圓
- ・ 市街地 再鋪裝 ————— 4 個所 30 百萬圓
- ・ 禮山川 覆蓋 ————— 40 m 50 百萬圓
- ・ 交通信號機 施設 ————— 1 個所 15 百萬圓

### 市外버스 停留場 移轉新築

- 事業 期 間 : '89. 1 ~ 9 月末
- 事業 費 : 2,100 百萬圓 (民資)
- 施設敷地 買入 吳 造成 : 3,350 坪 230 百萬圓
- 停 留 場 新 築 : 836 坪 1,870 百萬圓

## 3. 管内 大單位 事業

單位: 百萬圓

事業 名	規 模	事業費	期 間	施行廳
計		<b>25,603</b>		
國道 21 號 線 擴 張 4 次 線	擴 張 : 4.8 km 陸 橋 : 30 m	5,085	'87~'90	大田地方 國土管理廳
禮山大橋架設	延 長 : 347 m	3,500	'87~'90	大田地方 國土管理廳
國道 29 號 線 裝 鋪	延 長 : 3.3 km	1,300	'89	大田地方 國土管理廳
國道 45 號 線 裝 鋪	延 長 : 6.8 km	2,794	'87~'90	大田地方 國土管理廳

忠南西部地域運轉 免許試驗場施設	17千坪	3,200	'88~'90	忠南警察局
如來味里 貯水池施設	貯水面積：124 ha 貯水量：1,366千t	3,135	'85~'89	禮唐農地 改良組合
玉溪貯水地施設	貯水面積：274 ha 貯水量：1,404千t	3,544	'85~'89	禮唐農地 改良組合
新院地區 排水改善事業	430 ha	3,045	'88~'90	禮唐農地 改良組合

## 대저 觀光事業 造成

- 西海岸 時代 開幕에 副應한 觀光客 受容
- 地方 自治制 實地에 따른 自主財政 擴充

### 1. 直營 골프場 造成

#### 가. 興 件

- 位 置 —— 大興面 東西里 (禮唐貯水池邊)
- 周 邊 景 觀 —— 禮唐貯水池, 自然金
- 丘陵型 郡有 林野 —— 389,768坪
- 觀光地와의 連 繫 —— 任存城, 國民觀光地, 뉴시터  
德山溫泉, 修德寺

#### 나. 推進計劃

- 規 模 —— 敷 地：395,192坪 (私有地5,425坪)  
會 數：18 會 (會員1,800名)
- 事 業 費 —— 90 億원

(單位：百萬원)

코스 造成	土 木 工 事	建 築	造景및잔디	裝備및什器	間 接 費
30	30	10	10	5	5

○ 事業期間 '89 ~ '91

## 2. 經營收益 展望

### 가. 골프場 造成 收益 (會員券販賣)

會員券販賣額	工 事 費	收 益 額	備 考
150 億원	90	60	· 會員券價格：1千萬원 · 會員募集：1,500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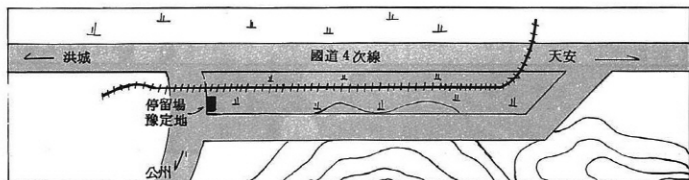
### 나. 골프場 經營收益

區 分	收 入 (入場料)	支 出 (維持管理費)	年 間 純收益	備 考
開 場 1 ~ 3年	3 億 원 (月 1,500名)	3 億 원	0	60 億원 (골프場造成收益) × $\frac{10}{100}$ (利率) = 6 億원 (利子收入)
4 年以後	6 億 원 (月 3,000名)	3 億 원	3 億 원	3 億원 (運營收入) + 6 億원 (利子收入) = 9 億원

## 3. 事 業 效 果

- 自主財政 擴充 및 郡有地 地價上昇
- 地域發展 促進 및 禮唐貯水池 觀光地化

### □ 位 置 圖





□ 現 況

- 邑內地域과 新禮院間 生活圈分離
- 地域發展의 鈍化

□ 事業概要

- 區 間 ————— 禮山郡 山城里 ~ 問良里 (7 個里通過)
- 規 模 ————— 幹線道路 開設: 5.5 km (幅 20 m)
- 事 業 費 ————— 29 億원
  - 既 施 行 : 0.7 km (3 億원)
  - '89 計 劃 : 2.0 km (10 億원)
  - 今 後 計 劃 : 2.8 km (10 億원)

□ 事業效果

- 既存의 分離된 生活圈 連結로 地域發展 促進
- 自然景觀과 調和된 300 千坪의 새 都市 造成
- 44 千坪의 郡有地 活用度提高 및 鐵道건널목 2 個所 迂廻

### 農村비닐하우스 健康管理室 設置

□ 與 件

- 비닐하우스 栽培 ————— 1,300 農家 450 ha
- 비닐하우스內 環境 ————— 高溫多濕 (外部와 10 ~ 20 ℃差)
  - 하우스病 誘發: 疲勞, 眩氣症, 感氣, 腰痛 等
  - 作 業 忌 避: 適期 營農 墮跌

□ 推進計劃

- 健康管理室 示範設置 ————— 6 個所 (비닐하우스內 3 ~ 5 坪)
- 設 置 內 容 ————— 疲勞回復 機具 샤워室, 休息台 等
- 事 業 費 ————— 3,000 千원 (棟當 500 千원)

□ 事業效果

- 하우스病 豫防 ————— 農民健康生活維持
- 快適한 作業環境造成 ————— 作 業 能 率 提 高

來 訪 人 士

가 신 분

오 신 분

교 육 장	李 英 馥	청 양 교 육 장	3. 1	李 盈 福	청 양
경 찰 서 장	조 동 규	치 안 본 부	3. 1	이 정 길	화 순
부 군 수	신 우 식	대전직할시공무원 교육원 교 수 부 장	1. 16	전 일 순	부 여
농 협 지 부 장	이 용 규	대전시농협지회부회장	4. 22	박 찬 관	서 울
충청은행지점장	손 성 남	대전 동대 전 지 점	4. 7	성 찬 모	청 양
세 무 서 장	김 영 모	경 주 세 무 서	4. 4	황 규 종	서울국세청
국민은행지점장			3. 29	박 영 호	서 울
농산물검사소장	전 상 룡	청 양	1. 16	민 태 현	당 진
금 오 국 교 장	이 주 한	정 년	3. 1	박 우 평	조 립
공 보 실 장	유 병 주	공 주 시 공 보 실 장	1. 20	장 수 동	부 읍 장
경 무 과 장	박 용 덕	서 산 보 안 과 장	3. 1	박 재 옥	홍 성
정 보 과 장	하 정 용	읍 내 파 출 소	2. 28	전 윤 수	대 천

## 編輯後記

○…民族自尊의 文化立國의 國政基本方向이란 崔秉烈 文化公報部長官의 談

百濟文化精神을 이어가자는 沈大平 忠清南道知事의 談  
이 모두가 鄕土文化의 뿌리를 다져나가는데 文化院이 해야 할 일들을 強調하였기에 特輯으로 삼았다.

○…新文學 開拓期에 純文藝誌요, 民族文學을 定立하는 「朝鮮文壇」

을 爲례 全財産을 投球하면서 10餘年동안 文學人을 輩出한 事實은 우리나라 現代文學史에 至대한 功績을 우리 禮山人 만이라도 잊을 수 없을상 싶어 方仁根 先生의 生涯를 照명한 金貞旭 先生의 玉稿를 답었다.

고장사도 아닌 筆者가 밝혀준데 感謝한다.

○…우리고장에 下嫁해온 王女가 두분있다.

至尊의 身分으로 먼지 世上을 떠난 男便을 섬기는데 百姓들도 어렵고 듣기 어려운 烈女와 節婦의 行蹟으로 旌閭를 받은 恭愼·和順 두翁主를 밝혀 보았다.

○…地方自治制가 實施된다고 하기에 가장 重要하다는 實行豫算과 郡政現況을 밝혀보는 것을 처음 試圖해보았다.

( 李 恒 馥 )

發行日 / 1989年5月26日

通卷12輯

發行 / 社團 禮山文化院  
法人 禮山邑 禮山里 433  
☎ 0458-2-2441

印刷 / 光明印刷公社  
禮山邑 禮山里 723-9  
☎ 0458-2-4102